

# Alain 研究 抄錄

—Alain 에 관한 研究論文 拔萃 抄錄—

鄭 鳳 九\*

- I. Alain
  - 1. 人間 Alain
  - 2. 그 思想形成
- II. 語錄(《Propos》)
- III. 思考와 判斷
  - 1. Alain 이 생각하는 哲學과 哲學者
  - 2. Alain 의 哲學素材와 文學
- IV. 幸福과 情念
  - 1. 幸福發見
  - 2. 情念의 系列
- 3. 情念善用
- V. 自由와 正義
  - 1. 自由散見 및 對比
  - 2. 正義寓話
  - 3. 良心과 自由, 正義 對比
- VI. Alain 文學과 20世紀 批評文學
  - 1. Alain 과 20世紀 批評精神
  - 2. 人間精神의 批評家 Alain
  - 3. 《Propos》에서 試圖된 作品批評의 例
  - 4. 百年後에 남는 文學

## I. Alain

### 1. 人間 Alain

Alain, 本名 Emile Chartier<sup>1)</sup>, 그는 職業上으로 볼 때, 哲學教授였으며 또 동시에 한 著述家였다. 그는 83歲의 長壽를 누렸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많은 弟子들로부터 最大의 敬愛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著書, 著述을 통하여 많은 讀者들이 그의 生前 生後를 통해서 그의 哲學과 思想에 心醉되었다. 글자 그대로 그는 百年 熟慮의 씨앗(à réfléchir pour cent ans)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教師로서 哲學者로서 그는 모든 사람의 模範이 되었고 思索을 通한 師表가 되었다. 平生을 自由롭고 바르게 생각하려고만 하였던(il ne souhaite rien que rester libre et penser juste) 사람이다. 그를 尊敬하는 마음이 그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동일하게 싹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偉大한 사람〉,

이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X·X·로 된 élève de rhétorique supérieure à Henri IV의 한 어린 학생이 〈Alain Professeur〉의 題下에 쓴, 긴 教師評의 마지막 句節이다. André Maurois

\* 본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1) Alain: Emile Auguste Chartier (1868-1951)의 筆名

와 같은 그의 弟子도 그를 賢者로 꼽았고 소크라테스로 此喩하기까지 하였다.<sup>2)</sup>

그는 허황된 꿈을 輕蔑하였고 그와 같은 꿈이 지니게 되는 空虛함이라든가 또는 그 우스꽝스러움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런 部類의 空想을 少年時節에 읽고 의우고 흥내내던 冒險談에 얽힌 空想 정도로 여겼다. 말하자면 怪物들을 退治하고 無人之境을 달리는 식의 英雄 이라든지 <보물섬>을 찾아 들어가는 식의 웅히 내다보이는 空想 따위를 輕蔑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空想들 속에 戰爭, 名譽, 權力 따위를 사랑하는 部分이 人間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種類의 榮光을 모두 輕蔑하였다. 將軍이 된다는 꿈, 征服하고 支配하고 強制하고 恐怖를 일으키게 하는 따위의 일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런 것의 부질없음을 느끼고 그런 것이 되지 않기로 盟誓하였다.

Alain 은 또한 아카데미 受賞자가 되고 勳賞을 받는 場面을 꿈꾸기도 하였고, 富자가 되는 일 또는 스스로가 暴君으로 추앙받는 일 等等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野心에 對해서 그것을 動物이 되는 瞬間이라고 表現했고 自己는 항상 그렇게 되지 않기로 盟誓하였다.

그는 거의 모든 學者들, 그리고 教授들이 동경하고 있는 Sorbonne 의 자리를 生涯를 통해서 拒否하였고 Ecole Normale 을 卒業한 以來 41年間, 65歲가 되기까지 거의 全期間을 高校 教師로 지냈다.

1925년에는 敍勳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世俗의인 名譽를 輕蔑하는 그가 그것을 拒否할 것이 明白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폐기되었다. Alain 이 受賞의 榮光을 얻기는 겨우 1951年 5月 10日, 그가 죽기 불과 3주일 전이었다. André Maurois 가 病床에 있는 Alain 을 대신해서 受賞의 자리에 列席하였던 것이다. 주어진 賞은 文學大賞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判斷의 自由에 對해서 깊이 反省하였으며 어떤 強制라든지 또는 단순히 궁리를 豫想할 뿐인 그런 정도의 눈치에도 크게 反撥하였다. 총체적으로 그는 自由를 방해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決斷性과도 關聯이 있으며 그가 不決斷을 惡德으로 본일, 또는 글을 쓰는 경우에 마음에 떠오른 最初의 決意에 全力을 하는 일과도 相關된다고 본다. 그 自身이 쓴 글에 對해서 一字一句를 고치고 바로 잡고 검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Propos》에 얽힌 에피소드도 또한 自由를 尊重하는 이와 같은 그의 一面이었을 것이다.

結局 그는 여하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信條로 삼았고 어리석은 꿈에 잠긴다거나 自由를 잃는다거나 不決斷 속에서 주저하는 따위 일을 輕蔑하고 용납하지 아니했으며 여하한 陶醉로부터도 覺醒되어 있기를 바랬다.

2) André Maurois, De Proust à Camus: Alain, p. 100, Socrate n'est pas mort; il vit en Platon. Platon n'est pas mort: Il vit en Alain. Alain n'est pas mort; il vit en nous. G. Lanson P. Tuffrau,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 913. Maurois notamment l'admire sans réserve et l'égalé à Socrate, un Socrate dont il s'est fait récemment le Platon.

그의 思想形成이 이루어진 곳은 Lycée Michelet 와 L'Ecole Normal 이었다. 특히 Lycée Michelet 에서는 그의 哲學의 바탕을 만들어 준 Lagneau 를 만났으며 Lagneau 의 講義에서 두 가지의 題目 《知覺에 관하여》와 《判斷에 관하여》를 들었으며 思考의 唯一한 對象인 物體에 관해서 思考하는 것을 배웠다. Alain 은 Spinoza 와 Platon 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이들 偉大한 著者들에 관해서 얼마간의 觀念을 形成하였다. 또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글쓰는 일을 練習하였고, 나아가서는 純粹한 修辭學의 모든 訓練을 받았다고 《Historire de mes pensées》에서 말하고 있다.

그후 l'Ecole Normale 에서는 偉大한 몇 사람의 著書들 속에 문힘으로써 그들 <偉大한 精神>을 伴侶로 삼았고 그러므로써 그가 항시 받아들여 온 意志의 論理를 形成하는 方便으로 삼았다. Alain 自身, 이 일에 대해서 「이 3年間에 내 속에서 확실해진 것은 意志에 관한 教義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술회하고 있다. 사실 Alain 은 古代哲學을 純粹하게 받아 들이는데 더 충실했으며 새로운 哲學을 만들어 낸다든가 古代哲學을 批判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 古代哲學들이 지니고 있는 것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어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다.<sup>3)</sup>

l'Ecole Normale 時節의 Alain 의 讀書範圍는 좁게 限定되었다고 眞正한 著書家로서의 讀書方法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偉大한 著書들을 가까이에 놓고서 정성껏 읽었으며 책에 따라선 처음부터 끝까지 세번 네번씩 읽었다. 그가 學生時節에 읽은 독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mme de peu de livres, il a été fidèle aux philosophes que j'ai déjà nommés, (Platon, Spinoza) puis s'est attaché à Descartes, à Kant, à Hegel, à Auguste Comte. Ajoutez Tacite,<sup>4)</sup> Hugo, Saint-Simon, Retz,<sup>5)</sup> le Mémorial,<sup>6)</sup> Montaigne, Rousseau, Voltaire, naturellement Stendhal et Balzac, George Sand, plus tard Proust; puis les poètes: Homère, Horace, Hugo, Valéry; ce n'est pas là toute sa bibliothèque, mais peu s'en faut.<sup>7)</sup>

이와 같은 讀書以外的 것으로 Alain 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Stoïciens 에 관한 文獻을 조사한 일이다. 當時로는 아직 參酌할 수 있을 狀態로 集成되어 있지 않았던

3) Alain, Histoire de mes pensées, p. 43.

Je n'est jamais cru pour ma part qu'il fût possible de trouver une philosophie nouvelle; et j'avais assez de retrouver ce que les meilleurs avaient voulu dire; cela même, c'est inventer dans le sens le plus profond, puisque c'est continuer l'homme.

4) Tacitus. Cornelius (55-115)以後 로마 제1의 역사가.

5) Retz (1614-1679) 레즈樞機卿. 그의 「回顧錄」(1717年刊)은 인상적이고 繪畫의인 表現으로 프롱드의 亂을 묘사하고 있다.

6) 「생트 헬레나島日誌」(1823年刊) 나폴레옹 一世가 流配되어 있던 섬에서 날마다 秘書를 相對로 그 生涯의 回顧를 말한 것을 同行하였던 드라 카즈公爵이 엮은 책.

7) Maurois, Alain, pp. 15-16.

Stoiciens 哲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는 많은 時間을 바쳤다. 그리고 이 일은 그에게 前記한 著者들 못지 않게 많은 것을 주었다. Alain 自身 그것을 밝히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그의 著書 到處에서 볼 수 있고 그것들이 Alain 이 著述하는 이야기의 素材가 되어 있는 것을 發見한다. 아마도 Alain 이 지니는 高邁한 思想의 一部, 어느모로는 東洋의인 思考方式과 相通되는 忍耐나 諦念의 氣質이 바로 이 스토아派 研究에서 얻어진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1892年 哲學教授의 agrégation 을 獲得하고 Alain 이 敎壇에 선 최초의 자리는 Pontivy, 다음이 Lorient, 그 다음이 Rouen, 다시 그 다음이 Paris였다.

그동안 Alain 은 偉大한 敎師로서 그 生徒들의 가슴 속에 感動을 남겨주며 自身の 疲勞를 學生들이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였을 정도로 活氣있게 輕妙한 유우머로 메꾸어 나갔다. 그의 講義는 抽象에 앞서서 例文의 分析이 있었고 例話로써 彩色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例話가 특히 그의 生徒들의 平生을 通해서 잊을 수 없었던 感銘의이었다 한다.

1894年の Dreyfus 事件으로 프랑스 사회가 떠들석하였을 때 Alain 의 政治社會에 對한 태도는 急進派의인 立場이었고 Maurois 의 評대로 하자면 그는 急進派, 다시 말해서 溫順하지만 屈從치 않는 市民의 立場을 밝혔다. Lorient 에서는 즐겨서 民衆大學에 나가서 이야기하였다. 民衆大學(Universités populaires)이란 Dreyfus 事件이 초래한 精神의 危機를 克服키 위해서 1898년부터 1901년에 이르기까지 知識인들이 일으킨 運動이다. 一般大衆에게 敎養을 普及하고 意見의 交換으로 知識階級과 勞働者階級과의 接近을 企圖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특히 夜間에 開講하였다. Paris 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全國에 퍼졌던 활동이다. Alain 은 民衆大學에 出講하여 自身이 생각하는 眞理를 吶喊하였다. 民衆大學에 對해서 Alain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n eût dit que le monde des hommes s'éveillait. Une Université Populaire se fonda du jour au lendemain. Tous les jeunes en étaient. Nous parlions à la ville et dans les faubourgs. Non point pour instruire. Nous disons au peuple ce qu' il pensait. Nous dévoilions toutes les tyrannies.<sup>8)</sup>

이렇게 民衆大學에 出講한 일도 Alain 의 一面을 짐작케 하는 일 중의 하나다. Alain 이라는 名稱이 최초로 使用되어 세상에 알려지기는 바로 이 때였다. 民衆大學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市의 急進派 新聞을 支持키 위하여 時評을 써 보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著作家 Alain 의 誕生은 Rouen 에서 La Dépêche de Rouen 이란 한 日刊紙에서 저有名한 그의 《Propos》를 發表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Propos》의 執筆, 그리고 그 《Propos》의 出版으로 마침내 Alain 은 하나의 著述家, 하나의

8) Alain, op. cit., p. 58.

作家가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思想을 펼쳐냈다. 特別히 哲學을 文學으로 바꾸고 또 文學을 哲學으로 바꾸어 보려 했으며 新聞에 〈語錄欄〉을 쓰면서 〈輕簿한 것과 深刻한 것을 區別치 않고〉 〈新聞의 三配記事를 形而上學의 水準으로 높이려고〉하였다.

Alain은 戰爭을 嫌惡하였다. 그러나 1914年 第一次大戰이 시작되자 兵役의 義務가 없었지만 46歲의 나이로 志願兵이 되어 入隊하고 戰線에 나갔다. 그리고 1917年까지 한 兵卒로서 軍務에 從事했다.

眞實을 認識하고 그것을 敢行하는 勇氣를 가졌던 Alain. 意志로써 幸福을 삼으며 幸福의 秘訣이 다름아닌 幸福하고자 하는 意志라는 事實을 스스로 實行해 보인 Alain. 그는 晩年에 病床에 누워 있으면서도 조금도 괴로움을 호소치 않았고 얼굴에는 전혀 苦痛의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問病客들에게 오히려 慰勞의 말을 주었다고 한다.

Alain 이란 사람.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대로의 생활방법을 스스로 실천해 온 사람이었다.

弟子들에게 한 번도 失望을 주지 않았고

弟子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우선 意志의 사람이었으며

判斷力을 가지고 情念의 愚昧들을 찌르는 騎士的인 膽大性을 지녔던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幸福을 論하고 幸福해져야 되는 義務를 論하였으며, 「사람은 現在 있는 곳에 있다.」는 理致로 사는 方法을 가르쳤고, 眞正한 欲望과 野心이 무엇인가를 가려내 놓았고, — 이 두 列擧할 수 없는 眞理를 說破하였으며 그래서 〈Alain은 Alain이기를 바랬다. 그는 Alain이 되었다〉.<sup>9)</sup>

## 2. 그 思想 形成

Alain을 보다 正確히 把握하기 爲하여 그의 思想의 形成過程을 살펴본다.

Alain의 著書 《Histoire de mes pensées》는 Alain 思想의 經歷을 엮은 책으로, Alain 思想이 淸트고 形成되어간 經緯를 짐작하기에 좋은 文典이다. 우리는 이 책을 밑받침으로 하여 Alain의 많은 著書들이 이룩된 그 思想의 形成過程을 짐작 할 수 있다.

앞에서도 論及하였지만 Alain의 思想은 Lagneau를 스승으로 하고 Spinoza, Platon을 익힌 뒤 Descartes, Kant, Comte, Hegel, Aristote, Socrate 그리고 Stoiciens에서 그 根源的인 것을 캐냈으며 이들 偉大한 著述家들에게서 자기 思想의 스승으로서 또는 同調者로서의 根元을 찾은 것이다. Alain은 이들 哲學者들로부터 思想形成의 手段方法을 빌었고 自身의 發展飛躍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飛躍이야말로 Alain이 생각하는 하나의 意志며 그가 Platon을 위시한 많

9) Maurois, Alain, p. 150. Alain voulait être Alain. 11 l'est.

은 哲學者들을 探求하는 目的 中的 하나이기도 하였다.

Je me tire d'affaire par tous moyens; je prends aux uns et aux autres; et que m'importe si Platon a bien pensé ce que j'y trouve, pourvu que ce que j'y trouve m'avance à comprendre quelque chose?<sup>10)</sup>

哲學者 以外の 사람으로서 Alain 에게 思想的인 밑거름의 役割을 한 사람으로는 Rousseau 와 Montaigne 가 있었고 Dickens 의 小說과 Hugo 의 詩集, Balzac, Goncourt, Stendhal 等 Lyée 時節의 讀書며 또 Voltaire, Molière, Racine, La Fontaine와 같은 Ecole Normale 時節까지의 讀書를 들 수 있다.<sup>11)</sup> 그리고 앞에서 言及한 回想錄들이 있다.

그래서 Alain의 思想은 그의 讀書를 通하여 或은 哲學者에게서, 或은 小說家 詩人에게서 여러가지 觀念으로 抽出되었으며, <自由로운 몸짓에 의하여 Alain 나름으로 說明되었고, 말하자면 Descartes 의 觀念을 Corneille 속에서 빛나는 형태로 보는> 따위의 상황으로 透導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Alain 은 이와 같은 觀念에 이끌리어, 갖가지 情感을 體系의인 圖式에 의하여 論하며, 한층 나아가선 神秘的인 神學에 微妙한 色彩가 그대로 人間의 입을 다시 한 번 發見하기>에까지 도달케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文學作品에서 哲學性을 辨別해 내며, 哲學的인 思惟를 文學的인 作品으로 表現해 내고자 한 Alain 思想의 片鱗이라 하겠다. Alain 의 思想은 이와 같이 詩와 小說에서 가꾸어지고 싹트며 人間의인 많은 觀念世界를 形象化하기에 다다른 것이다. Alain 은 특히 詩에서 또 古代의 이야기에서 人間이 지닌 神秘로운 觀念을 찾으려고 했고, 모든 對象에서 얻어지는 感覺을 判斷하려고 하였다.

Alain 이 좋아한 詩人 中的 으뜸은 Homère 였다. Alain 은 남달리 Homère 를 칭송하였고 그의 詩에서 人間에 관한 無盡한 觀念을 發見해 냈다.

J' ai lu bien des fois, dans Homère, le conte de Protée, aussi ancien que les hommes. Et souvent je me le répétais à moi-même, sur le rivage de la mer sans moissons, ramené sans doute par cette odeur des algues, et par ces rochers qu'on dirait couchés dans le sable comme des phoques. Soutenant le conte par les choses mêmes, comme on fait toujours, mais attentif aussi, selon une règle secrète, à ne rien changer de cet étrange récit, comme si tout y était vrai sans aucune faute. J' imaginai donc le troupeau des phoques, et les héros grecs couchés sous des peaux de phoques,

10) Alain, Histoire de mes pensées, p. 28.

11) Ibid., pp. 270-271. On a su, par quelques publications, que j'ai lu Stendhal et Balzac, aussi Hugo, aussi Tolstoï, encore bien plus que mes philosophes préférés. On voit ici comment le plaisir de lire a été ma principale étude, et que ces explorations divergentes d'apparence ont fini par se rencontrer. Je devrais citer ici romanciers et poètes et expliquer à ma manière ce qu'ils ont trouvé à ce que je crois par une mimique de liberté. Il suffit que l'on aperçoive comment l'idée de Descartes, si brillante dans Corneille, qui est de style Louis XIII aussi, me conduisait d'abord à traiter des affections selon un tableau systématique, et, plus avant, à découvrir encore une fois que les nuances de la Théologie mystique sont tout humaines.

et remplis de l'odeur marine. Mais Protée ne paraissait point. Je me racontais comment ils le saisissent, et comment il fit voir toutes ses ruses, devenant lion, panthère, arbre, feu, eau. Je l'avais devant les yeux cette eau qui prend toutes couleurs et toutes formes, et n'en garde aucune, mais qui nous dit aussi toute vérité dès que, par attention vive, nous la percevons comme elle est. Je m'éveillai de ce conte, tenant une grande idée, mais trop riche aussi de ce monde tout changeant et tourbillonnant à l'image de l'eau trop parlante.<sup>12)</sup>

이것은 너무나 有名한 《l'odyssée》 第 4 歌에 나오는 얘기를 想起하는 內容이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Alain 思想의 形成過程을 <물의 思想>을 통해서 짐작한다. 即, Alain은 희랍의 英雄들이 Protée를 사로잡는 과정을 想起하며, 바다에서 느끼는 偉大한 瞬間을 함축성 있게 그려내고 있다. 모든 색깔과 모든 형태를 지니면서도 어느 한가지 형태로도 持續치 않는 물, Alain은 그 물을 있는 그대로 知覺하며, 물이 이야기하는 모든 眞實을 듣는다. 그리고 수 없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물처럼 變化하며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 관하여 하나의 偉大한 觀念을 形成한다. 지나치리 만큼 豊요한 觀念을 形成한다.

물(바다)의 思想은 분명히 Alain 思想의 根源을 이루는 主要한 思想이며, 그에게 知慧를 주고 생각을 주는 原始의 場所이었던 것이다. 또한 거기서 Alain은 人間이 지니는 情念의 원리 까지도 읽었다.

그런데 筆者는 이 물의 思想과 此喩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해 본다. 가령 바다와 바다기슭을 對立시켜서 바다를 哲學으로 보고 바다기슭을 文學으로 보는 일이다. Alain은 빈번히 물과 파도를 texte로 使用하여 觀念을 說明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은 相互關係를 類推한다.

Ici s'achève à ce que je crois toute méditation sur l'Esprit objet. Le penseur est avalé par cette immense existence; et nul n'a pitié du penseur. Heureux s'il échoue de temps en temps sur quelque petite plage, Corollaire ou Scholie. Alors il reprend son sens et plonge de nouveau.<sup>13)</sup>

Alain 思想은 客觀으로서의 精神에 관한 모든 省察을 完結하고 바다로 比喩된 이 巨大한 現實 存在 속으로 삼켜져가게 마련인데, 때로 어느 조그만 해변 기슭에 漂着하게 되면 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해변 기슭으로 比喩된 Corollaire(系)와 Scholie(註)를 哲學에 對한 文學으로 그리고 觀念에 주어진 註釋으로 볼 수 있다.

Alain은 思考의 到達點으로서의 系와, 定理를 깨닫는 方法說明으로서의 註를 그의 文學으로 表現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는 系라든가 註와 같은 해변 기슭에 到達하기 위하여 거듭 航海를 계속하며 물 속에 잠기는 것이다. 이 作業은 <本質로부터 現實存在로>가는 추락과정이며 또

12) Alain, Les idées et les âges, p. 7.

13) Alain, Histoire de mes pensées, p. 92.

〈全體로서의 主를 섬기려 하는 聖書精神의 마지막이자 最上の 아름다운 努力〉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Alain 은 세계를 〈莫大한 重量과 여러 관계들로 가득찬 巨大한 짐승〉으로 느끼지 아니하였으며 〈精神〉으로써 느낀 것이다. 即, 世界の 여러 現象들이 그것들에게 밑으로부터 接近하지 못하는 대신 제일 위로부터 接近할 수 있는 〈全體知〉 속으로 녹아 들며 解消되었던 것이다. Alain 은 이것을 恩寵이라 하였고 知慧라 하였다.<sup>14)</sup>

Alain 의 文學은 바로 이 恩寵에 接하여 知慧를 얻기에 熱中하는 作業이었다고 본다. 그는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繼續하여 글을 썼으며 글 쓰는 속에서 幸福을 만끽하며 偉大한 著述家들의 航跡을 觀察하였다.

Je connus alors le bonheur d' écrire. Et ce travail fut continué jusqu'aux Propos. Avec quel ravissement je trouvai ensuite dans Stendhal cette espèce de maxime, qu' il avouait avoir connue trop tard: «Ecrire tous les jours, génie ou non.»

En tous ces exercices, de parler et d' écrire, je tirais les idées comme les chevaux tirent le foin. Il fallait pourtant découvrir un ordre, des principes, une clef enfin de l' expérience.<sup>15)</sup>

客觀적으로 精神에 관한 모든 省察을 完結하고 巨大한 現實存在 속으로 삼켜져들다가, 逢着하게 되는 해변 기슭에의 漂着, 그것을 Alain 은 哲學者의 幸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Alain 自身の 경우에 Propos 文學으로 또 그 밖의 作品으로 表現된 것이라 생각된다. 即, 그의 Propos 文學 속에 실려진 思想은 Alain 自身の 기쁨을 造成하는 作業이며 讀者에게 感動을 주는 貴한 教訓이기도 하였다. 그는 牛馬가 먹이풀을 끌어내듯이 思想을 끌어냈고 經驗의 열매로서의 秩序와 原則을 發見하면서 人間이 幸福을 지니는 方法, 또는 幸福을 獲得하는 態度, 그리고 錯誤로부터 벗어나고 情念을 除去하는 知慧를 提示하였다. Alain 의 Propos 를 위한 作業은 그 다음의 沈潛과 또 그 다음의 漂着으로서의 Propos 作業을 위한 繼續되는 省察과 觀察이었다고 본다.

## II. 『語錄』(《Propos》)

《Propos》가 文學의 장르로서 그 位置를 굳힌 일은 確實히 文學史上 注目할 만한 일이다. Propos 는 Alain 이 命名한 Alain 文學의 名稱이며 1906년부터 1914년까지 3,098篇이나 發表되었다. 이것은 편지지 두 장 정도로 要約되는 散文으로서 여기에 披瀝되는 Alain 의 思想은 實로 無邊하다 하겠다. Alain 의 語錄集에는 이미 쓰여진 語錄을 그 內容의 類型別로 모아서 單行本으로 刊行한 것과, 처음부터 語錄形式으로 쓰여진 것의 두 가지가 있다.

14) Ibid. C'est là qu'est la grâce. Cette sagesse m'a enivré plus d'une fois et m'enivrera demain si je m'y mets.

15) Ibid., p. 61.



Alain 은 1906년에 루앙通信<sup>16)</sup>이라는 한 日刊紙에 쓰면서부터 알려졌다. 그러니까 Alain 과 『語錄』은 그때 바로서 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사실 그 以前까지 『語錄』이란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며 1900년경부터 紙上에 나타나기 시작하던 Alain 이란 이름 역시 그때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이 『語錄』은 같은 新聞紙上에 1914년의 大戦까지 줄곧 掲載되었으며 무려 9年間に 걸쳐 每日같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1906年 1月 16日부터 1914年 9月 1日까지 總 3,098篇이 쓰여졌으니 그 歴大함과 그 즐기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Alain 이 이 처럼 日刊紙를 위하여 每日같이 『語錄』을 쓰기는 그로서 끝났지만 1906年으로부터 實로 30年間을 두고 그는 『語錄』을 썼다. 그와 같이 쓰여진 『語錄』中에서 테마別로 모은 單行本이 多數 刊行되었고, 또 내리달이로 쓰여진 語錄形式의 책도 多數 있어서 語錄은 그 質量에 있어서 놀라운 것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文學, 藝術, 宗教, 哲學, 政治, 經濟 등 모든 問題에 관한 것이었다.

이로써 語錄은 完全히 Alain 과 함께 하나의 金字塔를 이루었으며 文學史上에서 Alain 을 象徴하는 하나의 文學장르가 되고 만 것이다.

Alain 이 처음으로 語錄을 쓰기 시작한 그 前後 經緯에 대해서는 그의 또다른 著書 『내 思索의 經歷』<sup>17)</sup>을 보면 자세히 짐작할 수 있다.

Alain 은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週에 한 篇씩 썼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順次的으로 『日曜語錄』이니 『月曜語錄』이니 하는 題目으로 記事化하였다고 하는데 Alain 自身の 意見으로는 그것들은 하나 같이 平凡하고 失敗作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失敗를 메꾸기 위하여 라 데페슈 드 루앙의 有力者와 談合한 結果 每日같이 보다 짧은 글을 한 篇씩 쓰기로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그 始初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每日같이 쓰는 記事로서의 『語錄』은 『日曜語錄』 『月曜語錄』하는 먼저의 것들 보다 훨씬 쓰기도 수월하였고 또 結果도 좋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Alain 自身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 即 먼저 語錄의 경우에는 두 서너가지 着想을 求해가지고 그것을 適當한 모양으로 二段짜리 記事를 쓰는 일로, 그것 때문에 一週日을 거의 다 망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것에선 가벼운 기분으로 붓을 날려 별로 힘 안들이고 편지지 두장 정도의 짧은 글을 쓰는데 成功했다고 하고 있다.

Alain 은 말하기를 “짧은 記事를 하나 쓰는 일이라면 별로히 抱負를 가질 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 負擔없이 붓을 잡아 結末에 到達하는 수도 있고 到達치 못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論點이 어긋났다는 치더라도 그저 약간 어색할 따름이다. 또한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도 대단히 多樣的 機會를 찾아야만 된다. 간간이 나는 傳統的인 저널리즘으로부터 동떨어진 곳까

16) La Dépêche de Rouen

17) Histoire de mes pensées

지 脫線하였다. 마침내 나의 習作노우트 안의 글투와 文體가 每日每日의 語錄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단한, 그리고 迅速한 無修正의 작업으로부터 내가 얻은 공부에 관해선 쉽사리 說明할 수 없다”<sup>18)</sup>고 하였다.

Alain 이 말한대로 『語錄』의 글들은 傳統의인 저널리즘의 글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語錄이 지니는 珍貴한 點이며 文學이 될 수 있는 永遠性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시 그의 책 『내 思索의 經歷』에서 Alain 이 한 얘기이지만 그 當時 Alain 은 財政的으로 넉넉지 못한 新聞을 돕기 위해 全然 報酬를 받지 않고 이 글을 썼다고 한다. 그 대신 한 마디의 削除도 許容하지 않았으며 絶對的인 自由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出版者가 나의 原稿를 採用하기 前에 미리 檢査해 본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하며 原稿에 대한 自由가 바로 文體를 만들어내는 한 手段이며 方法이라고 말하고 있다.

新聞에 發表할 當時 뿐만이 아니라 Alain 은 그 언젠고 글을 쓰는 手段의 要件으로서 自由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Alain 이 『語錄』에 臨하는 根本精神 乃至는 語錄形態의 基幹이었다고 하겠다.

André Maurois 는 말하기를 “『語錄』의 아름다움의 하나는 그것이 歲月이나 年齡과 함께 물결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거기에선 오리온의 방패가 추켜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보인다. 그곳에선 四季節이 룬드(輪舞)를 리드하고 춤추고 있다. 祝祭가 秩序있게 누비고 다닌다. 復活祭, 聖靈降臨大祝日, 聖體大祝日, 萬聖節, 크리스머스가 각기 언젠고 新鮮한 冥想의 口實이 되고 있다. 그 舞臺 뒤 분장실에서 歲差며 大寒이 命하는 또 하나의 사다리가 달린 季節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大寒은 文明의 中心을 바비로니아에서 티어르(古代케키니아의 都市)로 이끌어갈 것이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짐작되는 일이지만 Alain 의 語錄世界는 헤아릴 수 없이 多樣하고도 廣範圍하다. 即 그가 1906年으로부터 1914年까지 사이에 新聞紙上에 發表한 것을 제쳐놓고도 그 後에 줄곧 『語錄』形式으로 써온 글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의 關心事가 되었던 일들은 大體로 모든 것이 精神世界에 關한 일이었다. 그의 『語錄』을 칼럼이나 隨筆로 볼 때 그것들은 굉장히 次元 높은 것들이며 글을 만드는 曲藝師로서의 役割도 忠實히 지켜졌고, 哲人으로서의 主題도, 文體도 잘 지켜졌다.” 이 역시 모르와의 글이거니와 曲藝師의인 役割이란 Alain 自身이 使用한 表現이며 그가 語錄을 製作하는 課程에서 限定된 紙面과 每日같이 쓴다는 限定된 時間 안에서 하나의 作品을 만들고 生命을 부여하는 極한 作業을 表現한 얘기다. 그리하여 語錄에서 Alain 은 “哲學을 文學으로 바꾸고, 또한 반대로 文學을 哲學으로 바꾸는 일”을 그의 野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哲學은 우리 人間生活과 別個의 學問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정말로 어려운 問

18) Histoire de mes pensées

題란 모든 사람들의 日常의인 思考를 形成하고 있는 일” 그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Alain은 『語錄』을 形成하는데 있어서 그 冷徹性을 가지고 모든 錯覺들을 헤쳐나가는 것으로 主된 일을 삼았다.

그러니까 Alain은 身體를 가지고 思索을 說明하려 하였고, 自然에 關한 테마를 훨씬 더 確實한 것으로 取扱하였다. 卽 Alain은 恐怖니 憤怒니 絶望이니 또는 미움이며 사랑하며 하는 것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說明키 위하여 人間의 身體의 움직임에 立脚하였다. 이 間至에 關하여 Alain은 데카르트<sup>19)</sup>에게 배운 점이 많다고 하고 있다. 또한 自然에 關한 테마를 훨씬 더 確實케 봄으로써 “自己認識이 最初”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主觀의으로 思索하는 사람들의 狀況을, 꿈 속에 묻혀서, 이 世界로부터 隔離되어, 라이프니츠<sup>20)</sup>의 모나드<sup>21)</sup>와 같은 窓없는 生活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아 왔다. 그래서 이들 內在의이고 孤獨한 狀況에 대한 支持할 수 없는 虛構를 緻密하게 分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Alain은 語錄을 쓰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人爲의인 것을 벗어나고 世界를 人間의인 것이 없는 상태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는 以外의 것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Alain이 語錄에서 試圖한 分析은 結局 이와 같은 冷徹한 判斷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 根幹을 이룬 思想世界였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根本思想을 가지고 自己의 作業을 修辭上의 회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思辨의 暗礁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진정한 어려운 問題로 생각했던 “모든 사람의 日常의인 思考形成을 이루고 있는것” 그것을 分析하고자한 일, 그것이 바로 『語錄』의 世界였다고 생각된다.

### Ⅲ. 思考와 判斷

Alain은 思考의 對象인 物體에 關해서 思考하되 그것들 속에 內在하는 意味, 다시 말해서 Alain의 思想 속에 들어 있는 核心을 잃지 않고 叙述한다. 그러므로 Propos文學도 內容이 비록 恒茶飯事, 우리 生活周邊의 대수롭지 않은 얘기일지라도 그것은 單純한 文學語彙의 修飾이 아니며 거기에는 반드시 主題概念이 있다. 그러니까, 그의 Essai는 風景을 描寫하고 人情을 그리는 抒情描寫가 아니다. Alain이 意圖한 藝術의 理念은 決코 「藝術家의 感動의 自然스럽고 安易한 表現이 아니었다.」 그는 갖가지 物體에 關해서 그것을 思考의 對象으로 삼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어떤 主題와 中心概念을 두었다.

19) Descartes: Alain은 데카르트 思想을 到處에서 引用禮讚하고 있다.

20) Leibniz, (1646-1716) 도이취의 哲學者. 數學者, 모나드說로 有名함

21) Monade: 萬物의 實在性을 지니고 있는 構成要素로서 不可分의 單純實體이지만 原子와는 달리 非物質的, 精神의인 本性을 가지고 表象과 欲求로 되어 있다, 그것은 生物의 統一性, 自己同一性의 原理 및 모든 活動力의 源泉이라 생각하는 說

En cette longue série de Propos, Alain a ses thèmes favoris. Il s'intéresse à toutes choses et parle du dressage des chevaux comme des passions de l'amour, des ruses politiques, de l'art du peintre, de la guerre et de Dieu. Mais il était chaque sujet de quelques idées centrales qui sont comme l'armature de sa Pensée et auxquelles il revient sans cesse pour un coup de marteau mieux dirigé<sup>22)</sup>

여하간 Alain은 人間이 겪게되는 日常生活 全般에 걸쳐서, 그리고 觀念에서 오는 判斷等等 日常用語를 直接 分析함으로써, 항상 여하한 종류의 問題고 상관 없이 그것을 對象으로 삼고 思考의 실마리를 풀어가며 거기에 意味를 부여한다.

抽象성을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叙述한다면 그것은 「哲學」에 머무는 글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을 事例에 의해서 分析하고 또 潤色하는 일이야 말로 「文學」으로 바꾸는 일이라 믿는다.

Alain은, 讀者大衆으로 하여금, 讀者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悟性を 期待하였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讀者들이 「자기 주변의 인간을 인정하는 일, 또는 자기 자신의 感情을 인정하는 일」에서 크나큰 進步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Alain은 歷史上 어떤 事件, 偉대한 哲學者들이 겪은 逸話, 또는 偉대한 著述家들의 著者며 作家들이 남긴 作品 속의 얘기들을 例擧하면서 그와같은 事件의 特例에서 普遍性을, 普遍性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事例를 覺醒케 한다.

Alain은 現實生活에서 即 人間の 實際生活에서 寓話를 만들어 나가며 假飾없는 教育을 다시 말하여 教育訓戒 然하는 일 없이 모든 Propos 안에서 人間の 覺醒을 促求하였다.

Alain은 術學的인 것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그가 펼치는 文學形態로서의 哲學은 항상 率直하고 眞實되고 誠實한 忠告가 가득차 있었으며, 對象 事物에 對해서 「올바로 그리고 自由로 이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로서 만족하였다.」<sup>23)</sup>

그러니까 Alain은 우리의 思考 對象事物에 關해서 생각하는 方法을 가르치기 爲하여 모든 것에 關하여 言及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判斷하고 또 어떻게 認識할 것인가를 論하였다. 그러므로 Propos속에서 Alain은 「日常生活의 자질구레한 일들로 부터 아주 高度의 考察을 끌어냈다.」<sup>24)</sup> 그렇다고 해서 그가 Propos속에서 어떤 神秘스러운 힘을 主張한 것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超越的인 것에 대한 關心은 도무지 없었다.」<sup>24)</sup>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곳에서 世俗인 것에 대한 尊敬도 없었다.」<sup>24)</sup> 「Alain이 忠告한 일은 새로운 視線과 明哲한 頭腦를 가지고 事物에 接近하는 일이었으며,」<sup>24)</sup>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過誤, 偏見, 빠뜨리기(omissions), 混亂, 忘想, 詭辨 등을 摘發하는 일에 注意를 기울이는 일」<sup>24)</sup>이었다.

22) André Maurois, De Proust à Camus, ALAIN p. 105

23) G. Lanson-P. Tuffrau, manuel illustré d'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 912.

—Alain s'est contenté d'enseigner à penser juste et librement.—

24) Ibid.

지금 이와같은 前提들을 人間이 간직해야 하는 하나의 道德이라고 본다면 Alain의 哲學, 即 Propos 속에서 展開하는 Alain의 哲學은 學問이 아닌 文學으로서의 倫理學的인 性格을 多分히 지닌다. 그리고 그런 理由로 해서 그것들 속에서는 人間 共通의 希望事項과 理想條項이 普遍性的인 問題로서 提示되는 것이다.

On voit par là que, si la philosophie est strictement une éthique, elle est, par cela même, une sorte de connaissance universelle, qui toutefois se distingue par sa fin des connaissances qui ont pour objet de satisfaire nos passions ou seulement notre curiosité.<sup>25)</sup>

普遍的인 認識, 그것은 正確한, 그리고 知慧로운 判斷에 의해서 얻어지는 認識이며 구구한 說明이나 辯明이 必要없는 認識이다. Alain을 認識의 批判家나 判斷의 哲學者니 하고 規定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와같은 認識 批評과 그 判斷을 위해서 그는 많은 特例 속에서 普遍性을 찾는 것이다.

### 1. Alain이 생각하는 哲學과 哲學者

哲學이 무엇이나는 것을 말한 Alain의 글 속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La vraie méthode pour former la notion de philosophie, c'est de penser qu'il y eut des philosophes.<sup>26)</sup>

Le mot Philosophie, pris dans son sens le plus vulgaire, enferme l'essentiel de la notion. C'est, aux yeux de chacun, une évaluation exacte des biens et des maux ayant pour effet de régler les désirs, les ambitions, les craintes et les regrets.<sup>27)</sup>

Alain의 생각을 따르자면 哲學이란 善·惡에 대하여 正確히 評價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評價는 例를 들어, 우스꽝스러운 迷信이나 혹은 空虛한 前兆를 克服하려고 할 때면 事物의 認識을 內包한다.』<sup>28)</sup>고 하였고 『情念 그 자체에 대한 認識과 情念을 抑制하는 技術까지도 包含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Alain이 哲學을 文學으로 文學을 哲學으로 바꾸려한 意圖를 생각할 때 그의 哲學이 다시 그 어떤 事物의 認識을 안으로 지니고 있어야 되며 空虛한 前兆 따위로서의 情念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일, 그리고 그 情念을 抑制하는 技術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밝혀진 사실만을 가지고 Alain의 文學을 類推한다면, 即 그가 哲學을 文

25) Alain, *Éléments de philosophie*, p. 16

26) Ibid.

27) Ibid., p. 15

28) Ibid.

學으로 바꾸려고 한 그 文學을 類推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情念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認識의 手段이며 아울러 그 情念을 抑制하는 技術手段이다.

Alain 은 『哲學을 展開함으로써, 우리는 가지덤불로 가득찬 廣大한 別관을 엿본다』고 하였고 『그것이 바로 갖가지 情念과 그 原因의 認識이다』<sup>29)</sup>고 하였다.

앞에서 Alain 이, 哲學이 무엇인가를 確實하게 하는 올바른 方法은, 지금까지 많은 哲學者가 있었음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한 말을 引用하였거니와, 그는 哲學者들을 가리켜 『國王들이며, 幸福이며, 美德과 惡德이며, 神들이며, 결국은 모든 것을 審判한』<sup>30)</sup>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讚嘆되어 왔으며, 또한 빈번히 國王들 自身에 의하여 尊敬되었다』는 點이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하였다.

哲學이 무엇인가를 確實케 하는 올바른 方法이, 지금까지 많은 哲學者가 있었음을 생각하는 일이며 또 그들이 항상 讚嘆되었다고 한 다음, Alain 은 「요셉」<sup>31)</sup>의 예를 들고 있다.

「요셉」은 兄弟들이 질투로 「이집트」까지 팔려 갔지만, 갖은 苦難을 克服하고 파로의 宰相이 된 <創世記>속의 人物이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꿈을 解夢하고, 王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 卽 恐怖와 疑惑과 悔恨 따위 갖가지 情念의 뒤얽힘을 풀어내고 그것을 알아낸 賢者였다. Alain 은 「요셉」의 例로서 哲學과 哲學者의 性格을 밝히고 있다.

D'après l'exemple de Joseph on comprendra qu'en tous les temps, et en toutes les civilisations, il y eut des philosophes, hommes modérateurs, hommes de bon conseil, médecins de l'âme en quelque sorte.<sup>32)</sup>

그래서 Alain 은 『專制君主 側近에서 權勢를 마구 부리던 占星術師들이 아주 狡猾한 哲學者였다.』<sup>33)</sup>고 말하였고, 『그들은 星辰의 연결 속에서 未來를 豫見하는 양 꾸미면서, 실제로는 暴君의 갖가지 情念에 의하여 또는 政治의 인 늪은 展望에 의하여 未來를 점쳤다.』고 한다. 그러나 哲學者들의 運命을 다음과 같이 規定짓고 있다.

Ce fut toujours le sort des philosophes d'être crus d'après une vue plus perçante qu'on leur supposait, alors qu'ils jugeaient d'après le bon sens.<sup>34)</sup>

以上에 例示한 Alain 의 理論을 바탕으로 考察해 볼 때, Alain 이 생각한 哲學과 哲學者의 觀念은 古代社會의 賢者와 王에게서 具體적으로 披瀝되었으며 Alain 이 念願한 哲學과 文學과

29) Ibid.

Si on la développe, on aperçoit un champ immense et plein de broussailles, C'est la connaissance des passions et de leurs causes.

30) Ibid., p. 17

31) <舊約聖書>의 「創世記」중의 人物, 「야곱」의 아들  
Alain, op cit, p. 17

33) Ibid.

34) Ibid.

의 相互關係도 우리는 여기에서 찾는 일이 合當할 것으로 생각한다.

Alain 은, 賢者들이 王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알아낸 것처럼 우리 人間의 마음 속에 서린 수 많은 情念을 짐작했다. 그래서 Alain 은 그 깊은 洞察로서 짐작하는 人間의 情念을 풀어주고 뒤엎힘을 풀어주는 일로서의 文學을 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Alain 은 哲學을 展開함으로써 人間生活에 內在하는 情念의 가시덤불로 가득찬 廣大한 벌판을 엿보는 것이며 그것이 如何한 原因에서 오는 情念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認識시키는 作業을 文學에서 찾고자 한 것으로 본다.

主로 語錄(Propos)으로서 代表되는 Alain 의 文學을 吟味할 때, 우리는 古代 賢者에게서 Alain 이 認識한 審判者와 좋은 忠告者 그리고 훌륭한 靈魂의 醫師를 다시 볼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가 哲學을 文學으로 바꾸고 文學을 哲學으로 바꾸고자 努力하며 意圖한 結果라고 判斷한다.

## 2. Alain 의 哲學素材와 文學

古代의 賢者들이 王의 心中을 꿰뚫어 보고 世態를 짐작하며 앞을 내다보아 判斷을 내려 그것을 論하고 說破한 일을 哲學으로 看做하는 境遇, 오늘의 哲學을 文學으로서 表現하려고 한 Alain 의 文學은 그의 哲學 材料였다고 보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古代의 賢者들은 王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說得力으로 그의 哲學을 讚嘆받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Alain 의 文學內容이 되어야 할 哲學은 王의 자리에 대신한 오늘의 讀者大衆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선 안된다. Alain 의 野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萬人의 마음속에 서린 情念의 가시덤불은 빈틈 없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고 있으며, 그 가시덤불로 廣大한 벌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려내고 또 그것을 認識시켜주는 일, 여기에 Alain 의 文學目標이 있고, 이와 같은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說得, 바꾸어 말하여 文學叙述이 바로 哲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흔히들 Alain 을 要約하기 어렵고 規定짓기 힘든 作家로 말하는데 그것은 當然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哲學材料가 人間生活 全般에 걸친 일이고 온갖 情念이 싹트는 萬가지 事由 속에 있을 것이니까 말이다.

Alain 은 그의 《Propos》에서, 그 Propos 의 篇數만큼이나 많은 事項들을 實例로서 指摘하였으며 그가 崇拜하는 또는 共感 同調하는 많은 哲學者와 作家들, 그리고 傳해 내려오는 逸話, 심지어는 有名 作品 속에 그려진 作中 人物들까지 對象으로 삼으며 自己 얘기를 펼치고 있다

. . . je prends occasion de cet avertissement pour rappeler que tous ces Propos enferment la véritable philosophie, c'est-à-dire celle des grands auteurs.<sup>35)</sup>

35) Alain, op cit., 〈Avertissement au Lecteur〉

이것은 Alain 이 그의 哲學理論書 <Eléments de Philosophie>에서 Propos 에 관해서 言及한 部分이다. 여기서 Alain 은 「그 프로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다 自由로운 分析은 갖가지 義務와 自己認識을 現實生活에 接近시킬 것이다.」고 披瀝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Alain 은 Propos 에서 哲學的인 問題를 보다 自由로히 分析함으로써 人間이 지녀야 하는 갖가지 義務와 自己認識을 現實生活과 關聯지어서 論하였다는 얘기가 되리라. 말하자면 이것은 보다 廣範圍하고 自由로히 現實生活에서 우리가 分別해야 할 問題를 提示해 준 生活的 哲學書라 하겠다. 그러니까 Alain 은 「Propos」文學에서 참다운 哲學을 包含하고 偉대한 著作家들의 哲學을 包含하는 無限界의 哲學을 企圖한 것이다. 數千篇에 달하는 「Propos」에서 그가 얘기한 內容은 多少의 重複은 있었으나 結局 數千가지 얘기이었으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廣大한 別판, 「가시덤불로 가득찬 廣大한 別판을 엮보게 하는 일이며, 갖가지 情念과 그 原因을 認識케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文學의 形態를 채택한 哲學이었다는 點, 그래서 一般讀者가 意識하지 못하고 哲學을 呼吸하게 한 일이다.

Propos 에서 取扱된 哲學의 材料는 그러니까 人間의 情緒·感情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關聯된 倫理·政治에 관한 問題며 藝術·宗教·教育·經濟 등 人間生活과 關聯되는 모든 問題들이 總網羅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Propos文學의 題材가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이 如何한 것을 取扱하였건 窮極的으로 돌아오게 되는 곳은 앞에서 例示한 두 卷의 <哲學概論書>가 될 것이며, 精神과 情念에 關한 問題들이다. 이것을 分析하고 간추려 옮겨 볼 때, 그것들은 認識에 關係되는 것으로, 運動, 感情, 記憶, 想像, 時間, 主觀, 客觀 등 「感覺에 依한 認識」과 言語, 會話, 論理學, 幾何學, 力學, 代數學, 辨證, 推論, 心理學, 人格, 氣分, 個性, 등 「推理에 의한 認識」 다음에는 「經驗」에 關한 것으로 觀察과 觀念과 推測과 事實, 原因, 目的, 自然法則, 原理에 關한 問題, 다음에는 「行爲」에 關係되는 것으로 本能, 宿命論, 習慣, 意志, 信念, 懷疑 等等에 關한 問題, 그 다음으로 「情念」에 關한 것으로 이것은 가장 많은 部面을 차지하는 對象이 된 것 같다. 例컨대 「幸福論」이며 「感情·情念 그리고 表徵」과 같은 <語錄集>들이 그것으로, 이 속에선 幸福과 倦怠, 戀愛, 野心, 貧欲, 두려움 忿怒, 暴力, 눈물, 웃음 等等에 關한 問題, 다음은 「道德」에 關한 것으로 勇氣, 節制, 誠實, 正義, 權利와 힘, 知慧 等等을 取扱한 內容, 다음은 「儀式」에 關係되는 것들로 禮節이니 結婚, 禮拜, 建築, 音樂, 演劇, 信仰에 關한 問題들이다.

생각컨대 위에 羅列한 事項들은 恒時 Alain 에게 있어서 커다란 原則이 된 人間條件의 要素들이며, 여기에 다시 根元이 되는 앞서 간 많은 哲學者들의 精神과 偉대한 著作家들의 얘기가 Propos文學 到處에서 여러가지 形態로 論及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Propos文學은 「哲學을 文學으로 바꾸려고」한 Alain 에게 體系學問 밖의 哲學의 場이었으며 王에게 尊敬을 받던 古代



賢人들의境遇나 마찬가지로 그가 바람직하게 여겨 온 「良識에 의하여 判斷하는」 「좋은 忠告者」로서, 그리고 「어떤 훌륭한 靈魂의 醫師」로서 努力한 思索生活의 記錄이었음이 分明하다. 그의 全 著作이 바로 다름아닌 그의 思索生活의 記錄이었으니까.

#### Ⅳ. 幸福과 情念

Alain 은 그의 有名한 《Propos》에서 幸福의 thème 를 가지고 많은 글을 썼다. 特히 그의 Propos 文學은 거의 全部가 哲學性 길은 Essai 로서 獨特한 內容과 思想을 지니며, 그 中에서도 幸福에 관한 思想은 다른 어떤 哲學者의 그것과도 比較될 수 없을 만큼 獨步的이다. 그는 幸福에 관해서 그것을 德으로 보았고(Bonheur est vertu), 幸福해지는 方法을 論했고(L'art d'être heureux), 幸福해져야 하는 當爲性(Devoir d'être heureux)을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幸福이란 누구나가 다 스스로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며, 追求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幸福은 人間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차지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 Alain 의 생각이다. 即, 幸福이란 허황된 想像 속에서 저절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며 努力에 의해서 獲得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일만이 아름다운 일이다.

Alain 은 그의 《Propos》에서 아주 많은 事例를 가지고 幸福을 論하였는데 그것을 크게 나뉘 볼 때 첫째는 幸福의 所在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는 幸福 獲得에 관한 問題다. 幸福은 어디에 存在하며 어떻게 獲得되는가?

Alain 의 눈으로 보면 幸福의 所在와 幸福의 獲得은 아주 簡單하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보지 못하는 것은 事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過誤(錯誤 erreur) 때문이다.

Alain 은 erreur 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소위, 〈想像의 病〉이란 것이 생긴다 하였고 또 이 〈想像의 病〉 속에 隱身하는 情念이 幸福을 喪失케 하는 要因이 된다고 하였다.

Alain 은 그러므로 情念을 바로잡기에 앞서 錯誤의 原因을 除去하라고 한다. 幸福의 沮害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情念을 바로 잡는 일이 되기도 하는 때문이라고 하였다. 〈精神이란 올바르게 判斷하는 意志다〉. 따라서 錯誤란 思考의 混亂이며 分裂이며 動搖다. 그런데 錯誤란 人間의 自然스러운 狀態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錯誤의 原因을 除去하는 일은 混亂, 分裂, 動搖의 狀態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일은, 우리의 幻覺 속에서, 人體의 混亂된 움직임과, 그 結果로 생기는 恐怖라든가 希望이라든가 하는 情念을 除去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Alain 의 幸福 思想의 根本理論은 바로 이와 같은 覺醒에 있는 것으로 본다. 꿈을 꾸고 있

는 精神을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일, 그것이 覺醒이라면, Alain의 幸福은 이 覺醒에서 오는 것이며 覺醒을 부여해 주는 일이 바로 그의 幸福哲學이다. 만약 精神이 꿈꾸고 있는 상태라면 世界는 그 꿈인 것이다. 때문에 世界의 表象 주변에서 꿈꾸는 者는 廣漠한 豫想을 멋대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로부터 不幸이 싹트는 것이다.

幸福은, 難關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信念, 그것이며 그와 같은 信念을 가꾸어 놓는 意志를 바라보는 마음의 充足, 그것을 幸福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情念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人間은 肉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肉體가 事物의 一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人間이 情念을 지닐 수 없게 하지는 못한다. 그것들 전부다 다 내가 存在하는 곳에 있으며 내 肉體 속에 가두어져 있다. 그러므로 情念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은 肉體를 갖지 못하게 바라는 일과 같다. 또한 情念없는 思考란 意味없는 일이며, 스스로의 속에 있는 現世的인 卑俗한 것을 救濟하려고 誠實히 소망할 때마다 自己自身을 救濟한다고 보는 것이 Alain의 생각이다. 때문에 모든 情念엔 善用的 길이라는 것이다. 情念이 없는 偉大한 行動이나 偉大한 思想에는 善用的 길이라고 하였다. 참고 견디어야 하는 크나큰 悔恨이나 苦惱가 있음으로써 藝術은 아름답다는 것이다.

크나큰 情念은 크나큰 感情을 鼓舞하고 크나큰 感情은 또 偉大한 思考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思考를 內包하는 것이 肉體다. Alain에게서 우리는 그 混合에 의해서 思考가 檢證되고 肉體가 純化되는 것을 본다. 人間을 통제하는 기술이란 많은 情念들을 情念에 의해서 規制하는 재주를 말함이다.

## 1. 幸福發見

Alain의 幸福思想은 그가 人間の 運命에 관해서 생각하는 意見과 같다. 그는 점쟁이가 말하는 豫言 따위의 運命을 믿지 않는다.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는 따위의 幸福은 幸福으로 보지 않는다. Alain思想에 있어서 運命은 人間이 努力하여 이룩하는 것이며, 幸福 역시 求하고 獲得하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人間の 運命이란 그 당사자의 생각을 따른다.

Alain은 運命이나 幸福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할 때 원하는 대로 사람을 따른다고 한다. 가령, 돈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돈은 돈을 숭상하는 사람에게 가는 법이라 하였다. 진정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Alain은 希望하는 것과 願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한다. 詩人の 例를 들어서, 한 詩인이 100만프랑을 희망한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서 구할 것인지 모르며 그 100만 프랑을 향해서 눈썹만 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결코 그것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詩를 쓰려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마치 악어가 악어 가죽을 만들고, 새가 깃털을 만들어 내듯이 詩는 그의 本性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름답다

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침내는 그 通路를 發見하게 되는 內的인 힘을 지니며 그것을 運命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Alain은 그러므로 <內的인 힘>으로써의 努力과 생각을 重視한 것으로 判斷된다. 그의 에피테투스 <까마귀의 例話>는 너무나 有名하다.

C'est du bonheur, si tu veux, que le corbeau t' annonce.<sup>36)</sup>

그러므로 Alain은 人間の 言動에 있어서 幸福에 違背되는 表徵을 모조리 排擊한다. 우선 좋지 않은 일에 대한 과장된 言辭에 대해서 삼가하라고 한다. 좋지 않은 꾸념들을 낚은 후렴 처럼 되풀이 하는 일은 아픈 것을 참듯이 참고 견디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것은 정신의 콜레라처럼 전염되고 사람의 마음을 우울케 하며, 사실을 사실보다도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

Alain은 그보다는 좋은 氣分을 表徵하는 微笑에 대해서 그 效果를 높이 評價한다. 특히 그것을 禮節과 關連지어 人間の 幸福을 불러오는 媒介로 여기고 있다.

Alain은 모든 行動 中에서 이처럼 幸福을 흥내내는 일, 그 幸福을 흥내내는 機會를 갖는 일을 愛重하라고 권한다. 그렇게 幸福을 흥내내는 行動이 기쁨을 배우는 일로 發展하기를 期待하는 데서 오는 권유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幸福한 시늉을 하는 幸福의 흥내는 그대로 그것이 幸福의 表徵으로 發展할 수 있을 것이며 結局 Aristote가 말한 바 <能力的 表徵>으로서의 <幸福>을 배우는 結果가 될 것을 겨냥한 권유로 생각된다.

사실 Alain은 Aristote의 「즐거움이란 能力的 表徵-Les plaisir sont les signes des puissances-」이란 말을 여러 곳에서 引用하지만, 그가 行動과 幸福을 관련짓는 것으로 미루어 그것이 行動에 관련된 能力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에게서 받은 幸福은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고 倦怠를 情念의 溫床으로 보는 것도 그런 思想의 一端일 것이다. <王은 지루하다>고 보는 그의 思想은 <만약에 王이라 해서 무엇이고 뜻대로 된다면 나는 王들을 불쌍하게 여긴다.><sup>37)</sup>고 한 그의 말을 뒷받침하며 <사람을 주저앉히는 富는 지루하다고, 다시 計劃하고 活動케 하는 富는 즐겁다.>고 한 말과 상통한다.

幸福이란 Alain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本質적으로 詩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 어린이는 어른들이 이룩해 놓은 庭園을 우습게 여기며 모래동산과 밀짚 따위로 그들의 庭園을 훌륭히 만든다고 此喩함으로써, 行動의 過程이 詩일 경우의 幸福을 높이 내세우고 있다. 알피니스트들이 느끼는 기쁨은 자기 자신의 힘을 발휘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立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산이 기막히게 즐거운 것이며 山頂의 雪景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말하였고 名山山

36) Alain, *Propos sur le bonheur*, p. 65

37) *Ibid.*, XLVII.

頂까지 電車로 運搬된 사람이라면 같은 太陽을 보아도 그 즐거움이 같지 않을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sup>38)</sup>

이것은 또 一面으로 볼 때, Alain의 幸福이 勞動과 作業에 얽힌 意志로 된 行動이라는 結論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有用한 일은 그 自體가 즐거운 일이다> <幸福은 實行하는 일>이며 <實行하는 幸福은 결코 想像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想像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Alain 思想의 意志에 의한 幸福觀이 나온다.

Alain에게 있어서 意志는 그의 思想을 代表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모든 事項에 連關된다. 幸福에 관한 思想에서도 意志가 차지하는 比重은 거의 絶對的이다. 幸福이 바로 意志인 것이다. Alain은 意志의 힘으로 感情을 바꿀 일이라 하였다.<sup>39)</sup> 그러니까 氣分나쁜 感情이니 슬픔이니 倦怠니 하는 따위 感情을, 비바람과 같다고 보는 것은 先入觀이며, <恩寵도 意志 뒤에 온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이 公共生活에 있어서는 저마다 항시 自身을 統制하면서, 私生活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못하고 自己感情 위에 몸을 높히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것은 幸福을 잃게 하는 일이며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쳐서 감정 의 노예가 되기 전에, 意志로서 感情을 다스려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 Alain의 생각이다. 그 實例로서 Alain은 自問하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읽을까」하면서 벌써 하품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Alain은 自問하기 전에 우선 읽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욕망이 意志로 發展하지 않으면 衰退해 버린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意志는 成功이며 達成이며 幸福의 手段이 된다고 본 것이다.

Alain은 또 그릇된 意見의 除去를 위하여 知慧의 必要를 얘기하고 있다. 不幸을 막고 幸福을 잘 유지 간직시키는 知慧를 가꾸어 줄 知慧의 學校가 必要하다고 하였다.<sup>40)</sup> 그것은 마치 醫科學校나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必要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國家가 醫科學校나 마찬가지로 知慧의 學校를 경영할 일이라고까지 하였다. 事物의 熟考라고 하는 진짜 科學과 그리고 이 세계와 같은 크나큰 詩에 依해서 知慧를 가꾸는 學校를 경영할 일이라 하고 있다.

Alain이 말하는 幸福의 要件이 모두 다 知慧로 이루어지는 知慧의 教科書겠지만 實로 그는 哲人다운 생각을 한 사람이다. 그는 賢者를 表現하여 마치 훌륭한 庭園師처럼 쓸데없는 表徵이나 이야기들을 정정해 버리는 사람이라 하였다.

Alain의 知慧 속에서 몇가지 例를 골라보자. 가랑비 속에서 거리를 가며 不平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주는 知慧—그에게는 구지폐한 비를 귀찮고 반갑지 않은 것으로 짜증내기 전에, 그 비를 찬양하는 知慧가 必要할 것이다.<sup>41)</sup> 그 비내리는 거리를 거닐며 不平을 늘어 놓는 사람

38) Ibid., LXIV.

39) Ibid., XXXVI.

40) Ibid., LI.

41) Ibid., LXII.

은 「또 구지레하게 비야!」 하고 투덜대겠지만 그래본들 빗방울도 구름도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오! 근사한 가랑비로구나!」하고 우산을 펴는 諦念의 知慧를 갖는다면, 그의 몸 전체에 훈기가 돌아서 비를 맞아도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不眠症에 시달리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知慧는 그대로 必要하다. 잠 안오는 일에 노심초사할 일이 아니라, 그 잠 못이루는 시간에 지금 自身이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동안 휴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知慧가 必要하다. 그러면 사서 고생을 하는 일은 면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있는 女子로부터 매정스러운 대접을 받고 괴로와 하는 남자에게 주는 知慧—그에게는 지난날의 幸福이며, 不貞한 女子의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이며, 그녀의 배반따위를 되새기는 대신, 그녀에 대한 생각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知慧를 줄 일이다. 만약에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없으면 억지로라도 自己의 不幸을 다른 方向에서 볼 일이다. 그런 여자 따위는 이미 청순성이 없어진 보잘 것 없는 여자라는 생각, 또는 할멈이 된 그 여자의 생활을 상상해 보는 일 등등이다. 따지고 보면, 《Propos》속에 있는 幸福에 관한 얘기들이 모두다 知慧를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Alain의 知慧란 結局, 스스로 만드는 不幸의 深淵에 몸을 내던지지 말고 英雄의인 療法을 쓰라는 것이다. 幸福을 獲得하는 知慧는 우리 人間들로부터 不安, 羨望, 悔恨 等 不幸의 要因을 除去해 주는 療法이라고 하겠다.

사람은 그 누구도 自己自身이 지루해 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수는 없는 법이며, 자기 스스로 힘을 지니고서 自身에 依하여 幸福할 수 있는 사람만이 他人에 의해서도 한층 더 幸福해지며 힘을 지니게 되리라는 것이 Alain의 생각이다.<sup>42)</sup> 말하자면 Alain의 幸福이란 각 개인들 그 자신의 능력에서 由來하는 것이고 그것은 각 개인의 身體와 일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옛날에 難破船에서 救助되어 알몸으로 上陸한 賢者가 「나는 나의 全 財産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한 얘기의 뜻은 그가 마치 음악가가 그 체내에 음악을 지니듯이, 또 미술가가 그 몸에 그림의 재주를 모두 지니고 있듯이, 또는 권투선수가 그의 주먹과 그의 다리와 그의 연습의 모든 成果를, 王冠이나 金錢을 지니는 사람과는 다른 方法으로써 지니고 있듯이 그의 모든 能力과 希望을 지닌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Alain은 사람들이 옛 賢者와 같이 자기의 幸福을 스스로 몸에 지닐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比喩에서 Alain은 完全한 意味로서 가장 幸福한 사람이란 옷을 벗어 던지듯이 다른 部類의 幸福따위는 모두 適切하게 배 밖으로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幸福을 美德으로 보기까지 한 것이다.

그는 사람은 幸福하려고 원해야 하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sup>43)</sup> 따라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잘 원하지 못하는 일이며, 援助가 없는 期待는 항상 슬픈 것이라고 하고

42) Ibid., LXXXIX.

43) Ibid., XC.

있다. 幸福을 自身에게 주어지는 物件처럼 期待한다면 그 個人的 私生活은 항상 슬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lain은 悲觀主義는 氣分에 의한 것이고 樂觀主義는 意志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모든 幸福이 意志와 抑制에 있다고 하였으며, 人間生活에 있어서 自制라고 하는 것은 生存의 一部를 이루고 있다고까지 하고 있다.<sup>44)</sup> 그의 思想은 一律적으로 規定지을 수는 없으나 <日常生活의 상세한 恒茶飯事로부터 가장 高度한 考察을 끄집어 내고 있다><sup>45)</sup>는 點이 衆論이다. 그러나 그의 幸福論이 모든 分野, 모든 測面에서 幸福을 沮害하는 것과 幸福을 가꿀 수 있는 것을 類別하여 例컨대, 倦怠·不安·悲哀·焦燥·僞善·怨恨·憂鬱·厭世·陰謀·惡德 等等 밝지 못한 要素를 막는 일과 특히 情念을 가라앉히는 健康과 行爲로써 正直이니 謙遜·諦念·勤勉·期待·信念·希望 等 幸福에 接近할 수 있는 事項을 題材로 삼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므로 Alain 思想에 의한 幸福의 獲得은 能力에 對한 信念이며, 그것이야 말로 바로 德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幸福해지려고 원하는 일은 自己精神을 잘 인도하는 일로써 충분하다고 보는 때문이다.

## 2. 情念의 系列

Alain 思想에 素描된 情念의 系列을 보기로 한다. Alain은 哲學의 問題와 關連하여 情念을 상당히 主要한 位置에 놓고 評價한다. 卽, 哲學이라는 것의 本質을 설명하며 「보통 哲學이라고 하면, 欲望·野心·恐怖·悔恨 등을 위하여 善과 惡에 대하여 正確히 評價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 評價는 情念 그 자체에 대한 認識과, 情念을 억제하는 기술까지도 包含하고 있다」<sup>46)</sup>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볼 때, 情念이란 哲學에 의해서 認識되는 對象이며 哲學에 의해서 억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哲學에 의하여 規制되는 欲望·野心·恐怖·悔恨과도 상관 있는 것이다.

Alain은 같은 책에서 또 認識과 情念에 대하여 言及하기를 「우리가 자기 자신의 過誤에 잠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여러가지 情念에 의하여 흐려진 認識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云云하고 있다. 이 말을 또다시 뒤집어 보면 情念이란, 우리들의 過誤와 關連하여 認識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過誤를 誘發케 하는 흐려진 認識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뒤에서 다시 論及하겠지만 위의 內容을 引用한 《Quatre-vingt-un Chapitres sur l'Esprit et les Passions》으로 出刊했다가 改訂한 《Eléments de philosophie》의 序論은, 哲學의 問題와 情念의 問題를 略儀한 Alain 思想의 早見表와 같아서 그의 哲學이 文學에 바탕을 둔 것이며 Alain

44) Ibid., XCII.

45) G. Lanson-P. Tuffrau.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 912.

< . . . il tirait des menus faits de la vie courante les considérations les plus hautes, . . . . >

46) Alain, Eléments de philosophie, p. 15. Introduction.

文學이 人間本性的 科學을 探究하는 立論을 집착케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우리는 쉽사리 人間本性的 科學을 探究하는 길이 情念의 問題와 關係있음을 깨닫게 된다.

《Eléments de philosophie》 제 5 권에 收錄된 <Des passions>의 內容을 살펴보면 全體가 13章으로 되어 있고, 1. Du bonheur et de l'ennui 2. De la passion du jeu 3. De l'amour 4. De l'amour de soi 5. De l'ambition 6. De l'avarice 7. De la misanthropie 8. Des malades imaginaires 9. De la peur 10. De la colère 11. De la violence 12. Des [larmes 13. Du rire의 순이다. 물론 이것은 直接的인 情念의 項目일 뿐, 그가 말한 人間本性的 科學(une science de la nature humaine)을 끌어내는 전부는 아니다. 제 1 권 感覺에 의한 認識, 제 2 권 秩序있는 經驗, 제 3 권 推理에 의한 認識, 제 4 권 行爲, 제 6 권 道德, 제 7 권 儀式 등에서 Alain은 人間 本性的 科學을 끌어내기 爲한 項目을 總體的으로 論하면서 제 5 권 情念項目을 相互連結하여 完成시키고 있다.

다시 이번에는 情念의 細部 項目을 살펴 본다. 1. Du bonheur et de l'ennui 에서 Alain은 倦怠를 가리켜 모든 情念이 은신하는 원천이라고 하였다. 倦怠를 느끼는 사람은, 고생없이 많은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며, 고생하여 많은 것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라 한다. 2. De la passion du jeu에서는 高度의 倦怠가 요구하는 治療法으로서의 노름의 情念을 論하였으며, 큰 노름에선 그 누구도 運命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하는 確信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내 몸까지도 파멸케 하려는 意志가 생긴다. 이 意志에 의해서 노름의 情念은 흔히 마침내는 노름꾼과 더불어 파멸되어 없어진다고 하는 內容을 풀이한다. 3. De l'amour에서는 <대단히 激烈하면서도 아주 속히 잊혀지고, 또한 아주 쉽사리 만족하는 肉慾>이라는 情念에 관해서 풀이하며, 그러나 그 情念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Alain이 <幸福한 家庭을 이룩하려고 하는 칭찬할 만한 欲求에 대한 戀愛關係는 이기고자 하는 욕구의 노름꾼에 대한 관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Alain은 「사랑에 있어서, 肉의 行爲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힘의 증거로써 욕구되는데 불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自由롭고 이성적이며 자랑을 지닌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Alain은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情念이 「다른 情念에 있어서보다도 한층 더 격하고 또 한층 더 親密하게 熱愛되고 있다」고 하며, 그 理由가 「모든 것이 人間的인 世界에서 이루어지며, 그 곳에선 여러가지 表徵들이 따로 생각지 않아도 하찮은 움직임에 의하여 교환되기 때문」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Alain은 사랑의 期待(기다림)로 말미암아 싹트는 마음의 情動을 잡아, 그 情動이 自己에게서 自己에게로 보내는 表徵임을 지적 自己愛에 관한 觀念을 論한다. 人間은 天性的으로 自己 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러나 社會的인 속박으로 말미암아 남의 일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자기를 위하여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생각, 利己主義와 愛他主義에 관한 觀念, 生命에 관한 문제, 自己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이 흔히 체면에 관한 일이며, 반드시 그 속에는 他人에게 대한 配慮가 끼어 있다는 點, 누구나 다 他人의 눈에 비쳐지고 싶은 모습대로의 자기를 그려내지 못한다는 얘기, 자기 모습을 자기 뜻대로 남의 눈에 자리잡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 등을 論하며, 4. De l'amour de soi 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다. 5. De l'ambition 에서는 年齡의 經過에 따라 戀愛의 위를 잇는 것으로써 野心을 말한다. 6. De l'avarice 에서는 큰 野心家와 比喩하여 큰 욕심장을 그렸고, 7. De la misanthropie 에서는 어떤 表徵 때문에 오는 不信 또는 人間嫌惡者가 빠지는 自己嫌惡者가 빠지는 自己嫌惡, 他人을 判斷하려고 함으로써 생기는 自己態度, 言語, 行爲까지 어색해지는 과정 등을 批判하며, 人間을 親切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人間을 짓밟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두 가지가 모두 過誤라는 觀念을 말한다. 8. Des malades imaginaires 에서는 想像的인 不安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病을 惡化시키는 사람들, 말하자면 不眠症이라든지 憂鬱症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죽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에의 욕구는 모든 슬픔과 모든 情念의 밑바닥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의 공포가 그것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自殺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意氣銷沈하는 일이다. 宿命論的 觀念과 결합한 자살의 공포는 우리들의 모든 情念의 擴大像이며 또한 흔히는 情念의 마지막 結果이기도 하다」고 9. De la peur 에서 Alain 이 뚜렷하게 표시하는 觀念은 「두려움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하다」고 하는 觀念이다. 10. De la colère, 忿怒에 대한 觀念도 이와 비슷하다. Alain 은 忿怒가 흔히 두려움에서 생긴다고 하였고 「힘껏 소리치며 울고 있는 어린애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하며 「어린애는 자기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고통과 자기 스스로 듣고 있는 소리로 말미암아 한층 더 소리치고 울게 되는 것」이라고 說明한다. 즉, 忿怒란 即興의으로 만들어내는 表徵이며, 미움이 忿怒의 原因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그 結果로 본다는 것이다. 11. De la violence 에서는 싸움의 觀念을 말하며, 「싸움은, 모든 情念의 解放임과 동시에 그 終末이다. 그래서 모든 情念들은 다 싸움으로 向한다」고 한다. 12. Des larmes 에서는 「눈물은 항상 鎮靜이며 그리고 慰安의 表徵이다. 그러니까 눈물이란 본래가 고통의 表徵같은 것이 아니다. 고통의 표징은 차라리 흐느낌이며 항상 눈물이 뒤따른다」고 하였고 13. Du rire 에서는 微笑를 禮讚하며 웃음이 情念을 가라앉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不信이 不信을 불러 일으키듯, 微笑는 微笑를 부른다>는 사실, 幸福한 人間이 그럴싸하게 「모든 것이 자기에게 微笑짓고 있다」고 말하는 理由를 說明하며 사람의 苦痛을 微笑로써 治癒해 줄 수 있다는 사실로 「微笑는 자기 자신의 情念이나 혹은 他人의 情念에 대한 어진 사람의 武器며, 微笑는 情念의 中心部分에, 그리고 情念의 힘에 매립한다」고 풀이한다. Alain 은 情念의 中心이나 힘이 결코 觀念 속이나 또는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微笑지을 수 없는 武裝된 忿怒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精神의 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의 選擇 排列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情念을 물리치는 데 있다고 하였고 가장 깊



은 意味에 있어서의 精神은 微笑 그 자체 안에 있다고 하였다.

以上 情念의 系列을 더듬어 項目別로 Alain 思想의 主要한 한 두가지 事項을 추려보았다. Alain 文學의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情念의 理論이 대체로 이런 것이었음을 確認케 된다. 語錄集 《Sentiments, Passions et Signes》에서도, 情念部分을 形成하는 主題들이 이런 內容이며, 忿怒·野心·嫉妬·羞恥·好色·感情·말더듬이 等等으로 人間本性의 科學을 끌어내는 것들이다. 情念의 系列을 正確히 分析·把握하는 일은 바로 Alain 의 幸福觀과 哲學의 問題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 3. 情念善用

un bon usage de toutes les passions(情念善用)이야말로 바로 Alain 의 幸福 思想의 目標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意志로서 다져지는 知慧며 美德이 될 것이니까 말이다. 그가 情念을 다스리고 善用하는 方法으로써 내세우는 것에는 體操가 좋은 例가 되고 있다.

Alain 은 體操에 依해서 身體 안에 蠢動하고 있는 情念을 몰아내고 安靜과 秩序를 維持할 것을 促求한다. 特히 그는 舞踊과 情念과의 相關關係를 그려내는 Alain 의 藝術論을 Maurois 는 總括해서 다음과 같이 規定짓고 있다.

La danse villageoise éclaire admirablement l'idée aristotélicienne de purification. Le délire de l'amour se traduit d'abord par une sorte de timidité, qui fait craindre un refus, et à partir de laquelle se développent les passions les plus folles. Laisée à elle-même, cette émotion peut conduire au désespoir et à la violence. Par la danse, l'amour prend forme. Les gestes désirés deviennent permis parce qu'ils sont réglés. L'accord de tous les danseurs intègre le désir animal dans l'ordre humain. Par des mouvements réglés et rythmés, l'amour se laisse penser; il prend de l'assurance; il cesse de balbutier. La danse exclut le désordre et la fureur.<sup>47)</sup>

이와 같이 舞踊에 의하여 마음의 安靜이 얻어지는 동시에 無秩序와 激情을 排除함으로써 錯亂된 情念의 要素가 善用轉化될 수 있는 계기를 이룩하는 것이 바로 Alain 의 體操觀이다. 따라서 情念은 결코 精神하고만 相關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肉體의 安靜을 통해서 精神의 所産인 情念을 식히게 하는 結果를 招來케까지 한다. 이것은 Alain 이 情念을 精神的인 面에서와 肉體의인 面에서 보고 있는 例로서 情念이 사는 곳을 精神보다는 身體에 두는 경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증거다. Alain 自身이 그와 같이 쓰고 있다.

Même, par ma coutume de loger plutôt les passions dans le corps que dans l'esprit, . . . .<sup>48)</sup>

Alain 은 情念의 善用으로 얻어지게 되는 藝術作品에 關한 貴重한 이야기들과 함께 情念을

47) Maurois, Alain, pp. 99-100.

48) Alain, Histoire de mes pensées, p. 103.

다스리는 方法으로 肉體의 運動, 말하자면 體操種類的 效果를 누누히 이야기하고 있다. 가령 體操의 效用에 關해서 *Propos sur le bonheur* 에 실린 例만 보더라도 적지 않다.

De même la peur est une angoisse du corps contre laquelle on ne sait point toujours lutter par gymnastique.<sup>49)</sup>

On peut s'étirer volontairement et se conduire à bâiller, ce qui est la meilleure gymnastique contre l'anxiété et l'impatience.<sup>50)</sup>

Contre tous les maux de l'ordre moral, et aussi bien contre les maladies à leur commencement, il faut assouplissement et gymnastique.<sup>51)</sup>

On ne pense point comme on veut; mais, quand des actions sont assez familières, quand les muscles sont dressés et assouplis par gymnastique, on agit comme on veut.<sup>52)</sup>

Gymnastique et musique étaient les deux grands moyens de Platon médecin.

情念에 依해서 情念들이 規制되는 方法과 過程을 到處에서 例示한 Alain 思想을 評하여 Maurois 는 「比喩해 말한다면 뜻이 바람을 利用하여 바람과 싸우는 일」과 같다고 하였다.<sup>53)</sup> 앞에 서 말한 體操에 의해서 舞蹈藝術로 이끌어내는 따위의 比喩도 그와 恰似하다 하겠다. 大體로 藝術作業의 契機가 되는 情緒를 Alain 은 情念에서 由來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偉대한 情念일수록 偉대한 感情을 鼓舞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情念에 의하여 찢기운 人間이 신음하고 한탄하고 허덕이며 외쳐낼 때> 그것이 音樂家の 素材가 되는 따위의 일을 情念과의 鬪爭을 美化한 하나의 情緒表現으로 보는 것이다.

Alain 의 情念善用이나 情念美化的 概念은 Aristote 가 생각한 藝術觀과 合到하였던 것이다. 即, Aristote 가 바라고 있던 것처럼 《藝術을 情念의 下劑》로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Alain 은 Balzac, Stendhal, Sand 와 같이 情念家로써 作品의 主人公을 삼은 作家들의 最良의 讀者가 되었고 그와 같은 作品에 대하여 더할나위 없는 讚辭를 던져주며 거기에 나타난 情念으로서의 自由意志를 높이 評價하고 있다.

吝嗇家の 情念을 그린 作品, 또는 守錢奴의 情念을 나타낸 作品, 또는 賭博者의 情念을 그려낸 作品에서 그것이 傑作으로 남은 緣由를 생각해 볼 때 과연 Alain 의 評眠은 正確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情念, 말하자면 吝嗇家の 守錢奴의 情念, 또 賭博者가 지니는 情念 따위는 그것이 지니는 그 나름대로 全體情念과 相通되는 人間の 面貌를 지닐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消滅되고 혹은 영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意味를 보여준다. 가령 吝嗇家에게

49) Alain, *Propos sur le bonheur*, p. 11.

50) *Ibid.*, p. 42.

51) *Ibid.*, p. 52.

52) *Ibid.*, p. 55.

52) *Ibid.*, p. 248.

53) Ainsi la voile se sert du vent pour lutter contre le vent.

는 그 융통성 없는 딱딱한 誠實性이 勤儉節約으로 나타나며, 守錢奴의 경우에는 <많은 즐거움을 스스로에게 禁하며 즐거움을 克服하는 일로써 그리고 財力을 蓄積하는 일로써 강력한 행복감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에서 誠實性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情念의 藝術化로서의 作品表現에 대한 그의 讚辭는 그가 情念處理善用으로 아는 하나의 幸福觀의 表示이며 또 어떤 크나큰 意味를 人生에 附與함으로써 그것이 人間에게 주어지게 마련인 價値觀의 背定이라 하겠다.

## V. 自由와 正義

### 1. 自由散見 및 對比

Alain의 自由를 明白히 把握하기 위하여 그리고 現代的인 側面에서의 自由解析을 浮刻시켜 보기 爲하여 紗르뜨르의 自由概念을 잠깐 考察해 보기로 한다.

紗르뜨르의 自由는 『神이 없으므로 해서 一切가 許容되며, 따라서 人間은 내버려져 있는』<sup>54)</sup> 自由속에서, 『모든 것을 위하여 자유로웠고, 바보 짓을 하는 것도 또는 남의 꼭둑각시 구실을 하는 것도 그의 自由이었으며, 자유로이 受諾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把握할 수도, 자유로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회피할 수도 있는』<sup>55)</sup> 상태로 저 自身을 立法者로 삼고 『스스로 자기 存在를 선택하는』<sup>54)</sup> 自由에 處刑된 疎外 人間을 만드는 自由라는 것이다. 卽 『人間은 저 자신이 자기를 만들어 내지 않았고 또 그러면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處刑되었다』고<sup>54)</sup> 보는 것이며 『어떤 가능한 依支도 없이 決斷을 하도록 處刑된 채, 永久히 自由롭도록 處刑된 채로』<sup>55)</sup> 머물게 되는 自由속에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紗르뜨르의 自由人은 無爲安遊 속에서 쓸데없는 自由를 누리며 孤獨하고 疎外된 人間의 自由를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紗르뜨르가 「양가주망의 一大決斷을 내리기 이전의 人間=自由의 否定的 一面이라는 것을」<sup>55)</sup> 표시하기 위한 남아 있는 自由 分析이었지만, 여기서 指摘된 紗르뜨르의 自由를 알랭의 自由와 對照比較할 때 자못 興味로운 것이 있다.

卽 紗르뜨르의 自由에 處刑된 疎外人間은 알랭의 『同意』에 依해서 얻어지는 自由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진 自由人間이며 그 自由 자체가 그야말로 自由=追放으로 보는 紗르뜨르의 定義 그대로 自由의 根本概念에서 벗어난다고 본다. 왜냐하면 알랭의 自由는 對人關係에 있어서의 그리고 對社會關係에 있어서의 自由이기 때문이다.

물론 紗르뜨르의 自由가 神의 不在를 前提로 하고 出發하는 것이며 그 狀況設定이 알랭의

54) Sartre,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55) Sartre, Les Chemins de la Liberté.

境遇와 同一한 것은 아니지만, 自由 그 자체를 論함에 있어서 한 人間의 생각 속에서 追究되는 自由 그것만을 가지고 自由를 뒤쫓는다는 事實의 모순이다. 人間은 疎外되어 있지 않다. 最少限 알랭의 自由는 疎外되어 있는 人間이 지니는 自由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싸르트르의 孤獨 속으로 逃避하는 脫社會의인 自由가 아니다. 알랭이 論하는 自由는 責任을 지니는 自由며 建設的인 自由며 또 古典的인 自由라고까지도 할 수 있다.

現代哲學이 人間의 高度한 發展을 뒤쫓으며 心理學의 分野로서 人間意識의 細部的인 分析과 觀念所在의 多樣한 基準을 세우는 일은 좋으나, 또 한편으로 볼때 이와같은 理論들은 지나치게 奢侈스러운 意識의 體系化인 것으로 여겨진다. 싸르트르 自身도 그러니까 그것을 『쓸데없는 自由의 孤獨과 疎外』로 보았고 『世界에서 追放된 自由人間』이라 論했지만, 알랭의 눈으로 볼 때는 이와같은 自由까지도 自由에서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同意될 수 없는 自由로 規定지을 것도 같다.

알랭이 論한 自由는 위에서 論한 바 싸르트르가 말하는 그 自由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보다 큰 範疇의 自由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와같은 部類의 頹廢的인 自由를 牽制하는 自由이기도 하다.

如何問에 알랭의 自由는 人間의 平和와 社會에 寄與하기 위한 自由이며 自由 자체 속에 沈潛기 위한 自由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알랭의 自由는 根源的인 自由, 隸屬에 相反되는, 支配에 對立되며 權力으로 놀리지 아니하고 服從으로 假飲될 수 없는 自由인 것이다. 그것은 精神이며 意志이기도 하다.

Alain의 觀念을 따르면 「判斷없는 自由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다.」 여기서 결코 내버려진 自由를 問題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自由放縱은 인간을 악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自由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규율이 人間의 自由放縱을 막게 되는 결과를 알랭은 만족하게 여기고 있다. 규율을 衣常에 比喩하며 衣裳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인간은 미친 사람과 같다.」고까지 하고 있다.

Le costume est déjà une loi, et toute loi plaît comme un costume.<sup>56)</sup>

Alain은 自由를 尊重하면서 自由못지 않게 규율을 尊重한다. 규율이 없는 自由는 自由로서 存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규율 역시 어떤 他者를 抑壓하고 規制하기 위한 규율이기보다는 自己를 다스리는 규율인 것이다. 알랭은 無節制한 自由放縱을 情念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고 일종의 奴隸根性으로 보기까지 하였다. 無制限의 自由는 自由가 아니라고 오히려 奴隸的인 根性이라고 보는데 싸르트르의인 自由觀과 相違한 角度로서의 自由規定이 있으며 東洋的인 思考基準까지 있다고 본다.

56) Alain, *Propos sur le Bonheur*, p. 231.

自由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의 禮節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규율을 衣裳으로 비유한 알랭의 생각은 自由放縱의 벌거숭이에게 衣裳을 입힘으로서 벌거숭이의 存在로 말미암을 他人의 不自由를 막아주는 自由의 固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禮節에 있어서도 禮節에 對한 열려가 너무 지나쳐서 相對方에게 不便을 준다면 그것은 禮節이 못될 것이다. 相對方의 自由와 나의 自由를 함께 喪失하고 말 것이다.

지나치게 相對方을 意識한다는 일은 도리어 禮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므로 自由로운 態度로 自由意志에 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讚辭마저도 無禮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自由意志에 依한 讚辭와 自由意志에 依한 眞正한 同意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알랭이 提示하는 모달리스트서의 倫理觀이며 다른 모든 辯說을 刑成해 나가는 基本問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부패할 줄 모르는 判斷者. 自由로이 決定하는 者, 내가 강제할 수 없는 자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sup>57)</sup>

## 2. 正義寓話

Retenons que la justice suppose certainement un état de nos relations avec nos semblables qui ait leur libre et franche approbation, et la notre.<sup>58)</sup>

正義란 그러니까 하나의 狀態이다. 우리들과 他人, 또는 나와 相對方, 相對方과 나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狀態인 것이다. 그 狀態가 自由롭고 率直한 同意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바로 正義인 것이다. 이와같은 論理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 同意가 自由롭고 率直하지 못할 경우에는 正義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의 自由意志를 威脅한다든지 또는 어느 편이고 本意 아니게 同意하는 狀態라면 그 狀況은 不正이다. 또한 雙方間에 同意는 하고 있지만 그 同意하는 내용이 똑같지 않을 경우 말하자면 同床異夢格인 경우, 그와같은 狀態도 正義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알랭은 正義가 될 수 있는 狀態 속에는 「에매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야 되고」 「虛言이나 詐欺도 일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모든 交換이나 契約에서, 너를 相對方의 立場에 세우라. 그것도 모든 것을 네가 알고 난 연후에 말이다. 그리고 반드시 人間으로서 가능한 限度껏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 교환이나 契約에 同意하겠는가의 여부를 생각해 보라]<sup>59)</sup>

57) Alain, Esquisses de l'homme p. 182

Qu'est-ce que je cherche donc, sinon l'incorruptible juge, celui qui décide librement, celui que je ne puis forcer?

58) Alain, Eléments de Philosophie p. 307.

59) Ibid., p. 308. [譯文: 拙譯『生活의 知慧』(乙酉文化社刊, 世界思想教養全集續 8)]

Alain 이 말하는正義는 보다 深奧하고 보다 高潔한 次元에서의 平等을 뜻하며 「强者와 弱者 사이에서 또 識者와 無識者사이에서 어떠한 것이건 상관 없이 마침내 세워지게 되는 올바른 交換의 關係」를 뜻하는 것이다.

Alain 은 正義를 表面的인 假象에서 보지 않았으며, 우리가 肉眼으로 볼 수 없는 事物의 根底에 깔린 原理에서 보고 있다. 말하자면 心眼에 비추어지는 事理自體의 正確한 判斷과 그와 같은 能力의 公平한 配分에서 이루어진 交換方法이나 同意狀態만을 正義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嚴正하다고 생각되는 交換에서 얻어진 富까지도 그것을 正義로 보는 일에는 反對하고 있다. 알랭이 世俗의인 榮辱을 否定하고 그것을 所有치 않기로 盟誓한 哲學的인 信條의 一端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富나 利權에 따르는 交換者들 間의 誤判, 過誤, 投機等等 一時的인 遊戲를 全然認定치 않고 있다. 商去來에 따르는 利害得失에서의 公正을 正義와 結付시키는 矛盾을 지적하며 그는 「充滿한 正義란 항상 正義의 기초와 규칙을 想定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 正義는 사람들이 누구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啓發되기를 바라는데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正義란 우선 主張되고 다음에 想定되고 마지막으로 認定되는 平等이다.]<sup>60)</sup>

그리고 正義의 精神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려낼 줄 알며 그 狀況을 제대로 判斷하는 사람만이 바른 눈과 바른 態度를 갖는 것이다.

知識이 높은 사람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대하는 態度, 有力한 사람이 無力한 사람에게 對하는 態度, 또한 어떠한 外部的인 壓力狀況에 屈하지 않고 平靜을 기하는 態度 그런 것에 期待하고 있다. 더 말할 것없이 알랭의 正義는 이와같은 狀況의 進行이며 또 이와같은 狀況의 維持形成助長이라고 보아 틀림없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暴君이란 이와같은 理想社會를 깨뜨리는 存在 乃至는 이와같은 理想社會設立의 防害者를 말함이다. 우리는 여기서 크고 작은 많은 形態의 社會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수 많은 個人間의 人間關係를 생각할 수 있다.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個個人的인 家庭으로부터 職場社會 또는 社會團體, 그리고 그와같은 協同體로서의 各個 團體를 이루고 있는 人間 相互間의 約束契約, 이런 것이 어떠한 水準에서 어떠한 方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問題가 思考해 볼만한, 그리고 反省해 보아야 할 焦點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주어 모아 본 그의 正義概念을 좀 더 鮮明하게 하는 方法으로 이번에는 不正에 대한 Alain 의 解釋을 살펴보겠다. Alain 은 不正을 說明하는 方法으로서 「힘」을 例示하고 있다. 그리고 寓話『늑대와 새끼양』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힘이 不正이 되는 경우를 分析하고 있다.

即, Alain 은, 힘이란 힘 그 자체로서는 正義와 아무런 關係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힘이

60) Ibid., p. 311.

不正이 되는 경우란 역설로서 他人의 同意를 구하려고 하는 경우이며 그래서 자기의 역설이 審判者에 의해서 허용되기를 바라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다. 늑대가 늑대인 때문에 不正일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늑대가 不正한 것은 그 힘의 行使의 그릇된 처사때문인 것이다. 늑대는 새끼양이 대답할 거리를 갖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고 대답할 거리를 찾지 못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역설로 새끼양의 同意를 얻어 아울러 審判者의 허용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審判者는 늑대 자신인 것이다. 이와같은 「精神의 自慢」때문에 늑대는 不正한 것이다.

결국 힘이 不正이 되는 것은 그 힘의 行使方法 如何 때문이며 힘 자체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正義는 결코 審判者의 判斷에 종속케 되는 늑대의 成功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이 公平하려면 「이치를 저울질 하는 것이지 힘을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닐」테니까.

여기서 이와같은 論理의 事理를 分析해 볼 때 Alain이 審判者라고 말하는 것의 本體는 良心이라고 본다. 即 良心이 눈 멀고 모든 것을 自己本位로 解釋하는 人間은 精神의 自慢 속에 사로잡혀 자기의 힘을 자기 좋은대로 判斷하며 行使할 것이고 결국 그는 不正과 惡을 저지를 것이다. 精神의 自慢으로 因해서 審判者로서의 自己良心이 그 구실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같은 者가 만약에 強力한 힘을 所有하고 있고 욕심에 부풀어 있다고 하면 그가 恣行할 惡의 範圍와 深度는 그만큼 클 것이며 이 社會 또한 恐怖로 가득할 것이다.

이 狀況을 Alain은 다시 『기게스의 반지』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로서 比喩하고 있다. 傳說의 主人公 기게스는 일개 牧童이었으나 王位를 奪取하고 류디아의 王이 된 人物이다. 그에게는 몸을 숨기는 반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반지의 힘을 빌어 반지의 보석을 안 쪽으로 돌려서 자기 모습이 숨기어진 후에 暴力을 恣行한다. 자신의 모습이 숨기어지는 그와 같은 힘을 확인하기가 무섭게 곧 바로 「機會를 포착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것이다.」

그는 왕이었다. 그리고 마음대로 橫暴를 恣行하였다. 그가, 즉 「기게스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안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뿐이었다.」 그리고 Alain은 이 점을 指摘하고 있다. 기게스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時間이 어느 때냐는 點, 그것이 단지 자기가 정말로 안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간 뿐이라는 점.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나마, 기게스에게도 한 가닥 良心이 살아있는 時間이 있다는 뜻으로도 짐작되고 기게스가 良心의 拋棄 그 自體에 얼마나 汲汲하고 조급하였던가 하는 뜻으로도 짐작된다. 어쨌든 여기서 Alain이 우리에게 주는 教訓은 기게스의인 人間型, 또는 기게스의인 過誤犯行에 對한 警戒라고 보아진다.

Alain은 「걱정되는 것이 없게 되자 대답하게 마치 개미나 벌레라도 놀러 죽이듯이 모든 수

단으로써 權力을 향하여 直行하는」 기게스의 모습 속에서 人間의 一面을 指摘한 것이며 이와 같은 蠻勇을 人間의 情念과 對照하고 있다. 목적을 향하여 곧바로 突進하는 人間 情念의 所行은 때로 기게스의 豬突을 능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짐작케 되는 것은 기게스의 반지가 象徴하는 우리의 힘으로서의 良心이다. 良心은 과연 누구의 눈에도 본 모습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며, 사람에게는 누구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自由」가 附與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다 기게스의 반지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며 그 반지의 보석을 안으로 돌리기란 아주 쉬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良心의 말살을 마음대로 하는 技能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소리다.

그러기 때문에 Alain은 「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만 될 것이다」고 斷言하였으며, 罰받지 않은 잘못에 對해서 하나도 責을 느끼지 않는 部類의 不正에 관해서 警告하고 있다. 반지를 버린다는 일은 良心의 소리에 敏感하라는 뜻하며 罰을 받고 받지 아니하고 따질 것 없는 本來的인 正義에 그대로 適用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소리이다.

결국 不正에 對한 批判이나 判斷에 있어서도 Alain은 힘을 行使하는 指導者나 經營者측에 보다 큰 것을 期待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짐작된다. 물론 그가 말하고 생각하는 自由와 根源的인 良心의 깨끗한 固守는 힘의 有無와 相關없이 各個人에게 주는 敎訓이며 또 道德律이겠지만, 그가 期待하는 哲人的인 目標은 항상 指導하는 位置의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하나의 社會를 형성하는 힘의 所有者가 바로 그들 指導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 지적한 其外의 正義事項, 말하자면 不正에 對한 富와의 關聯事項 또는 힘과 戰爭, 正義와 慈愛等等을 細論치 않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內包할 수 있는 基本原理나 比喩寓話에서 그가 말하고자 한 倫理觀의 基準과 남기고 싶어한 敎訓의 一端을 짐작키로 한다.

### 3. 良心과 自由 正義 對比

Alain의 自由思想은 人間社會안에서 人間이 지니는 「行動・思考의 自由」에 관한 思想이며 人間相互間에 맺어지는 和氣로운 理解關係를 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人間은 항상 自由를 많이 생각하면서 남의 自由를 별로 생각지 않게 되는 폐단이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Alain의 自由意識은 各個人의 高度化한 良心의 所産이 아니고는 社會 구석구석이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고루 期待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Alain의 自由는 良心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正義와 깊은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Alain의 正義觀은 마음의 平和에서 얻어지는 동시에 남의 自由를 侵害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無欲의 正道요, 남의 것을 貪하지 않는 마음이다. 따라서 Alain의 생각을 따르자면 自由와 正義는 良心이라고 하는 統對基準 위에 세워지는 不可分한 相關關係를 지니는 意志라고 하겠



다. 그리고 이와같은 良心의 意志를 東洋學的인 基準에서 본다면 그것은 完全히 君子之道와 相通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中庸; 天人論에 「하늘이 命賦한 것이 「性」이요, 性에 따르는 것이 「道」요, 道를 따름하는 것이 「教」다. 道는 잠시도 떠날 수 없나니 떠날 수 있으면 道가 아니다. 그러므로 君子는 그 보이지 않고 듣기지 않는 곳을 삼가하고 두려워하나니, 隱暗한 곳보다 더 드러나는 곳은 없고 微細한 일보다 더 뚜렷해지는 일은 없다. 때문에 君子는 그 內奧를 삼가한다.」고 하였다.<sup>61)</sup>

여기서 말하는 君子의 길은 多分히 Alain 的인 良心과 關連되어 處世道일 것이며 분명히 잠시도 君子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길일 것이다.

이와같은 違道의 경지를 채득키 위한 努力이란 人間 心情의 內奧에 싹트는 意念中에서 邪惡한 것을 除去하고 人欲을 制御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人間은 항상 人欲에 弱하고 邪惡한 일에 어둡다. Alain 이 例話로 引用한 바 아르놀프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잠글까」 「열까」 망설이는 昏迷의 瞬間이란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나 항상 오고 갈 것이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잠글까」 「열까」를 결정치 못하는 態度란 良心의 소리에 대한 肯定과 人欲에 따르려는 誘惑의 소리에 찢기우는 번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儒者들에 의하여 지켜져 온 이른바 「過人欲存天理」——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한다——는 생활태도는 Alain 的인 正義觀을 固守하는 態度일 뿐더러 「正義를 단지 內的인 調和와 훌륭한 自己支配라고 생각하려 한」<sup>62)</sup> 플라톤의 思想과도 일치한다.

플라톤은 그의 『共和國』에서 주로 올바른 靈魂을論했고 또 에피소우드로서 올바른 社會를論했다. 그리고 Alain 은 이 플라톤의 正義觀에 立脚하여 正義를 定義하였고 不正을 規定하였다. 「기게스의 반지」로 比喩된 不正의 霸權은 孟子의 『以力假仁章』과 흡사하여 이 역시 유사한 思想系層으로 여겨진다.

Alain 은 正義를 지키는 일을 誠實에 결부시키고 있다. 自己自身에 대한 誠實이 없이는 社會에 대한 正義確立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決코 僞善으로 이룩 될 수 없는 것이다. 僞善은 社會를 歪曲케 하고 人間을 道理에 背馳하게 하며 生來의인 性善을 變質시킨다. 儒學에 있어서도 사람이 天命을 잊고 「하늘이 命賦한 性」을 옹기 保全치 못할 때, 그 道는 塵埃에 빠지고 教는 어지러워질 것이다. 儒學을 받드는 儒學者가 이와같이 道에서 벗어나는 경우엔 腐儒로 腐落하고 俗儒로 轉落하고 末儒로 沒落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Alain 이 내세우는 가장 큰 倫理觀의 焦點은 中庸에서 말하는 教의 原理와 合致한

61) 中庸一. 天人論 1. 天과 人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君子戒慎 乎其所不睹 恐懼 乎其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62) Alain, Eléments de Philosophie, p. 306.

다고 볼 수 있다. 卽 人間안에 內在하고 있는 것들을 가장 바르고 마땅하게 發顯토록 自覺・啓發・矯正시키는 일이야말로 그가 眞正한 自由를 伸張시키고 또 드높은 正義를 振作케 하려던 哲學의 精神이었다고 본다.

## Ⅵ. ALAIN 文學과 20世紀 批評文學

### 1. ALAIN 과 20世紀 批評精神

Alain 의 批評은 人間의 知識과 行動의 批評이며 認識의 批評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批評은 人間의 行動이 있어야 할 그 本然의 姿勢와 知識의 判斷基準, 그리고 知識과 行動과의 一致를 爲한 理論이었으며 數 많은 敎訓을 지닌 글이었다. 말하자면 생각을 깨우쳐 주고 일러준 글이었으며 特히 바르게, 自由로히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는 글이라 하겠다.

그는 共感을 일깨우는 忠告로서 旣成觀念에 對한 吟味로 하여 「過誤와 偏見과 또 실수로 빠뜨리는 일, 混亂, 忘想, 詭辯 等の 모든 可能性을 摘發하는 일에 注意를 일깨우는 本質的인 認識의 批評家이었다.」<sup>63)</sup> 特히 그는 《幸福語錄》에서 幸福을 간직하는 方法으로서의 滿足하는 態度와 스스로의 精神을 誘導하는 知慧로움 또는 諦念 속에 悠悠自適하는 樂天精神 등을 事例로 들어서 例示하며 判斷하는 方法을 말하고 있다. 또 《情念論》에서는 「感覺의 混亂인 情熱」과 「精神의 放浪인 想像力」을 어떻게 다스리고 길들일 것인가에 對해서 많이 取扱하고 있다. 또한 그의 《語錄集》들 到處에서 보게 되는 內容이지만 《人間素描》의 여러 章에서 人間 性格의 矛盾을 指摘하며, 사람을 다스리는 者, 돈 있는 者, 權力 있는 者, 또 識者들이 犯하기 쉬운 誤謬와 我田引水式 思考方式의 危險을 摘發하고 있다. 곧 이것은 Alain 이 人間 精神에 對한 批評家임을 말하는 것이다.

Alain 은 詩나 小說等 文藝創作물을 쓰지 않았지만, 그에게도 어떤 特定作家에 對한 批評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스탕달》<sup>64)</sup>, 《발작크와 함께》<sup>65)</sup>, 《딕킨스》<sup>66)</sup>, 그리고 音樂家批評으로서 《音樂家訪問》<sup>67)</sup> 등이 있지만 그것들도 따지고 보면 人間 精神에 關한 批評이었다. 그의 著書에는 또한 戰爭에 關한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대강 戰爭의 要因에 關해서 또는 惡에 對해서 이야기된 마찬가지 精神批評이다. 專制者의 正義와 公正한 正義, 富者가 말하는 正直과 絶對的인 信義, 不正에 對한 良心, 精神의 自慢으로 因한 그릇된 審判과 惡의 恣行等 또

63) Lanson, Tuffrau Hiso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p. 912

64) Stendhal, 1935

65) Avec Balzac 1937

66) Dickens 1945.

67) Visite au Musicien, 1926

는 자유와 拘束과 奴隸, 서로 相關되는 相關關係를 「새로운 視線과 明敏」한 頭腦로서 觀察하며 正確한 判斷을 내리고 있다.

특히 Alain 은 意志에 關해서 強力히 얘기하며 어떤 일, 어떠한 難關도 이 意志로서 成就하고 解決된다고 보고 있다. 그의 《教育語錄》을 이루는 教育理念은 人間의 意志와 學生의 能力 認定에 依한 信賴感 附與의 精神이다. 그의 藝術論 亦是 이 意志에서 비롯된다. 即 「完全한 藝術作品은 理性, 意志, 技術의 知識, 勞動, 法則의 尊重따위를 要求한다」고<sup>68)</sup> 보는 것이다.

그의 本分野인 哲學書籍도 大體로 語錄形式과 비슷하며 事項別로 叙述되어 있고 그 分類叙述 方法이 亦是 精神批評과 人間精神 觀念의 方向 分析으로 되어 있다.<sup>69)</sup> 그러므로 Alain 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것이 文藝創作物이 아니지만, 그 文藝創作物을 만들고 쓰는 사람 乃至는 그 作品의 素材 根源을 想定하기에 이를 때가 多多히 있다. 이것이 또한 Alain 의 精神批評家로서의 偉대한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語錄의 形式은, 銳利하고, 단호한 語調로서, 說明이나 辯明이 없지」<sup>70)</sup>만 決코 強壓的인 印象이 아니며 溫和한 信念과 確固하고 明晰한 判斷에 깃들여 있어서 讀者에게 反省 省察을 주기도 한다. 그와 같은 느낌은 Alain 이 단지 글로만 表現하지 않고 몸소 實踐躬行한 때문이리라 믿어진다. 20世紀를 代表하는 8名의 批評家들과 다시 한 번 比較해 볼 때 Alain 에게는 그들이 共通의 지녔던 文藝批評家로서의 專門性이 없다는 일이다. 이것은 Alain 이 본래 哲學家로서 「哲學을 文學으로 바꾸고 文學을 哲學으로 바꾸는」일을 目標로 삼았던 때문이리라. 첫째 Alain 에게선 그가 自己 글에서 論하고 主張하였듯이 激情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Rivière 처럼, 自身 속에서 어두운 鬭爭을 계속하는 일이 없었고 Thibaudet 처럼 結論을 내리지 않고서 그저 說明만 하지도 않았고, Larbaud 처럼 넓은 教養을 가지고 鑑賞하는 식으로 조심스레 批評하지도 않았고 Jaloux 처럼 모든 作品을 檢討하면서 藝術作品의 使命이 現實의 부족을 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Suarés 처럼 傲慢한 焦躁로움이 가득찬 孤獨으로 人生을 보내지도 않았다. 또한 Alain 은 Du Bos 처럼 어떤 恍惚한 擬視를 爲하여 分析을 繼續하며 精神性만을 내세우는 形而上的 批評家도 아니었고 Lasserre 처럼 批評을 가지고 政治的 論爭의 道具로 삼거나 또는 Benda 처럼 哲學的인 論爭의 道具로 삼지도 않았다.

Roland Barthes<sup>71)</sup>는 現在 프랑스에서는 두 가지 批評이 並行해서 行하여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72)</sup> 그 하나는 Lanson 으로부터 이어 받은 實證的 方法의 實踐을 주로 하는 批評으로 講壇 批評이라 일컫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解釋批評이라고 하였다. 解釋批評을 說明하는 글

68) Lanson, Tuffrau op. Cit, p. 913

69) 《Alain의 倫理觀》1977學年度 祥明女師大 論文輯 第6輯 參照

70) Lanson, Tuffrau op. Cit, p. 912

71) Roland Barthes (1915-1980)

72) Roland Barthes: Essais Critiques p. 246 Les Deux Critiques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解釋批評을 代表하는 것으로는 J-P. Sartre(썩르뜨르), G. Bachelard(가스톤·바슐라르), L. Goldmann(류시앙 고르드망), G. Poulet(조르쥬 폴레), J.Starobinski(장 스타로빈킨스), J.P. Weber(장 폴 위버), R. Girard(르네·지라르) J-P. Richard(장·피에르 리샤르)하는 식으로, 상호간에 대단히 유리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共通되는 일은, 그 文學作品으로의 接近을 程度의 差異는 있을망정 그러나 어느 것이고 意識의으로, 現在의 主要한 이데올로기, 卽 實存主義, 막스主義, 精神分析, 現象學등에 結付시킬 수 있다는 點이다. 이 點으로 하여, 이 批評을, 一切의 이데올로기를 拒否하고 客觀的方法 만을 援用하는 講壇批評에 對立시켜서, 이데올로기 批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73)</sup>라고 Roland Barthes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現代 프랑스의 最尖端을 가는 權威批評家이다. 지금 이 最近 現代批評家의 理論에 맞추어 Alain의 批評家의인 位置를 規定짓자면 어느 部類에 들을 것인가 Alain은 선뜻 그 어느 편에도 所屬시키기 어려운 批評을 하여 온 것 같다. 굳이 말하자면 Alain도 역시 自身이 생각하는 哲學理論에 依해서 批評을 展開시킨 사람이므로 이데올로기 批評, 그러니까 解釋批評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Alain의 批評은 적으나마 어떤 이데올로기에 매이어 例컨대 實存主義라든지 막스主義라든지 또는 精神分析 또는 構造主義 따위 絕對의인 基準에 의하여 어떤 事例를 分析批評한 것이 아니므로 純全한 이데올로기 批評은 아니라고 하겠다. 단지 여기서 Alain을 解釋批評으로 卽 이데올로기 批評의 部類로 보는 것은 그가 自身の 信念 哲學에 의하여 人間의 行動과 知識을 批評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Alain의 批評이 傳記的인 文學의 事實을 立證하는 講壇批評하고는 多少나마 距離가 있는 것은 事實이다. 要컨대 批評文學의 區分이 完全히 「方法과 哲學」이라고 하는 確然한 差異로부터 오는 作業上의 問題이므로 Alain이 取한 批評의 方法 態度가 如何하였느냐로서 그의 批評을 講壇批評이나 解釋批評이나로 規定지을 수 있을텐데 Alain의 批評은 完全히 그 한 가지로 規定짓기에는 超然하다고 보아진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Alain에게는 全의으로 文藝批評을 目標로 한 著書가 드물며, 그와 비슷한 部類의 책일 경우라도 그것이 作品 그 自體를 評하는 경우 보다는 그 作者와 主人公의 性格을 評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間接的으로 말할 때 作家의 文學創作을 爲한 洞察力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結局은 人間批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Alain의 批評은 이데올로기 批評의 部類라고도 할 수 있지만 「現象學批評(作品을 說明하는 것이 아니라 明白히 하는 것)과, 主題批評(作品의 內部的 隱喩를 再構成하는 것)과, 그리고 構造批評(作品을 하나의 機能體系로 생각함)」<sup>74)</sup>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그렇다고 해서 實證批評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73) Ibid.

74) Ibid., p. 251

그런데 지금 Alain의 文學을 「傳記의 文學的 事實의 立證」을 標榜하는 講壇批評의 形態와 다르게 보는 理由의 또 하나로 그가 文學史的인 典據에 依存하여 自身の 批評을 作家나 作品의 類比(analogie)로서 形成하려 들지 않는 點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作品이 「講壇批評의 특별한 作業인 <源流>(sources)의 研究」가 아니라는 點이다. Alain은 이처럼 Roland Barthes가 指摘한 두 가지 批評의 範疇에 들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 時代의 代表的인 批評家 9名 속에 收錄되어 있다. A. Thibaudet의 《文學史》第5篇 1914年の 世代 「2 思想」中 「批評文學」을 보면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斷定的이고 짧은 評論을 考察(Remarque) 또는 語錄(Propos)이라 이름짓기로 하자. 이 名稱은 文學보다도 차라리 思想이나 風俗의 批評家인 두 사람 Suarès와 Alain에게 屬한다. 定期的으로 내놓은 手帖에 《Remarque》라고 하는 標題를 붙인 Suarès와, 그의 高張의 사과나무가 사과를 結實케 하고 있듯이 語錄을 익게 하고 있는 노르망디 出生의 語錄 作者, 이 두 사람은 그들의 樣式에 알맞는 말을 발견해 냈다. …… Alain은 그의 語錄 속에서는 얘기에 곁들여서 밖에는 文學批評을 試圖치 않지만, 그러나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하고 있다.<sup>75)</sup>

위에서도 指摘된 바와 같이 Alain은 文藝批評家라고 하기 보다는 思想批評家的인 性格이 濃厚하다. 단지 그가 意識한 가장 뚜렷한 것으로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哲學을 文學으로 바꾸고, 文學을 哲學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語錄을 처음에 <La Dépêche de Lorient><sup>76)</sup> 新聞에서 그리고 本格的으로는 <La Dépêche de Rouen>新聞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自由로운 語錄(Alain의 新聞)><sup>77)</sup>으로 發表함으로써, 그 發表 方法이 自身の 思想 思考를, 다시 말해서 哲學을 新聞 3面に 실는다는 方式으로 하였다. 이 點은 다른 批評家들이 이 雜誌를 利用하여 批評發表의 道具로 삼은 點과 比較하여 다른 點이다. 勿論 그 時期에도 저어널리즘은 盛行하였고 많은 評論들이 이것을 利用하였다. 例컨대 政治的인 저어널리즘도 있었고, 「新聞의 文藝評論은 勿論 한층 內容이 豊富한 獲得物을 우리들에게 提供하였다. 그것은 文學의 흐름의 必要한 一部를 이루었고 때로는 助言者의 役割을 하였고, 항상 그 秘書로서, 記錄係로서 일하고 있었」<sup>78)</sup>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역시 批評家들이 正統的인 傳統이나 생각을 펼치는 據點은 雜誌였다. 가령 큰 雜誌로서 《兩世界論評》<sup>79)</sup>이라든지 《新프랑스 評論》<sup>80)</sup>, 또는 《유럽》<sup>81)</sup> 《哲學》과 《精神》<sup>82)</sup> 따위들이 있었고 同人組織의 小雜誌들이 있었다.

75) A. Thibaude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Génération 1914

76) 처음으로 Alain의 筆名으로 語錄을 썼음. 1900年 5月 14日字부터

77) Libres Propos (Journal d'Alain) Nimes, Laborieuse誌에서 第1期(1921年 4月~1924年) 第2期(1927 3月~1935年 9月) 第3期(1935年 12月~1936年 12月)

78) Albert Thibaude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Journalisme,

79) Revue de deux monde(誌)

80) N. R. F.(誌)

81) Europe(誌)

82) Philosophie,와 Esprit, 둘 다 不定期 雜誌

이런 點으로 볼 때, Alain의 批評은 當時의 代表的인 批評家로서 어느 文學史에서나 重視되었으면서도 그 內容이나 그 發表手段 또는 批評에 臨하는 態度가 完全히 다른 批評家들과 區別된다. 아마도 이 點이 Alain의 特異한 點이며 또 尊敬 받는 點이 아닌가 여겨진다.

## 2. 人間精神의 批評家 Alain

認識의 批評家요, 判斷의 哲學者로 알려진 Alain은 그의 文學作品인 Propos에서 結局 人間精神의 良心을 批評함으로써 眞正한 正直을 밝혀내는데 主要한 根本(理念)을 두었고 虛僞와 僞善을 가려냄으로써 崇高한 精神을 펼쳐 나가려 하였다. Alain은 어떤 觀念에 內在하는 源泉의인 精神을 判斷의 對象根源으로 삼았다. 가령 「自制」를 가지고 論할 때 「人間은 弱함으로써 自制할 수도 있는 일이며」, 또 「正直」을 가지고 論할 때 「점으로 말미암아 正直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Qu'ainsi le problème moral est entre l'homme et lui-même, entre sa volonté et sa nature; que la vertu consiste seulement à vaincre les passions, et le vice à céder aux passions.<sup>83)</sup>

이와같이 Alain의 倫理 道德觀은 마음의 葛藤에까지 言及하고 있다. 卽 사람이 마음 안에 지니는 자기의 奴隸狀態를 指摘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의 勇氣를 찬양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굉장히 공포에 쫓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정직한 인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여차 여차한 경멸적인 시기심을 지니고 있음을 안다.』<sup>84)</sup>

이와같은 문제를 가지고 Alain은 Rousseau의 <에밀>에 言及하고 있다.<sup>85)</sup> 즉 Rousseau가 道德感情 敎育을 爲하여 <에밀>속에 상당한 부피의 章을 設定한 「사브와人 補佐神父의 信仰告白」<sup>86)</sup>에서 言及된 良心에 관한 問題다. Alain은 이 Rousseau에 關한 얘기 속에서 Diderot와 그 친구들인 「모랄리스트」들이 두려워한 「自律의 觀念」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 역시 善惡에 관한 判斷에 對해서 『自發的인 모든 것은 善이며, 精神의 奴隸狀態는 唯一한 惡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것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

지금 이 問題를 가지고 생각할 때, Alain에게 있어서의 解答은 「信念」과 「誠實」이라고 생각된다. 判斷을 위해선 「모든 것을 밝히는 일이 最上의 일」이지만, 그것에 관하여 善惡을 判斷하는 마당에 이르러선 그 곳에서 엿볼 수 있는 「表徵」만 가지고 決定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例컨대 『귀찮은 光線 때문에 눈썹을 찡그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으로 그가 나를 위협하였다고 내가 생각하겠으며, 또 여기 지나치게 오랫동안 서성거리며 초조해 하고 있는 政治家

83) Alain, *Eléments de philosophie*, p. 21.

84) Ibid.

85) Ibid., *Note sur Rousseau*

86) *Profession de foi du vicaire savoyard*

가 있다면 그 사람을 敵意가 있고, 侮辱당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겠느냐?』는 것이다. 그와같은 일에 對한 治療는 커튼을 쳐서 光線을 막아주는 일, 의자를 내놓아 자리를 제공하는 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情念의 慘劇은 거의 모두가 급하게 高度의 治療法을 시도하는 데서 유래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例示한 類의 「表徵을 思考의 높은 자리로부터 끌어내려 물체로 생각함으로써, 意志에 의한 行動領域 속으로 그것들을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와 反對되게 「表徵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엔 「자기 앞에 넘을 수 없는 障害를 세우고」 「不信과 防禦의 지배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人間的인 惡이 유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것들은 「思考」가 될 수 없는 것들이며, 「기분의 움직임」, 「本能的 反應」, 「疲勞」 따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智慧로 말미암아 이와같은 것들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通路 구실을 하는 이야기니, 推論이니 하는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主題로써 씌어진 Propos는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거니와 忿怒니 焦燥니 욕설이니 미움이니 또는 憂鬱과 같은 主題들이 그것이다. 特히 이와같은 內容의 Propos는 〈幸福論〉에 많이 收錄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精神의 姿勢는 人間의 幸福과 密接한 關係를 지닌다. Alain은 사람은 누구나 다 幸福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고 하였으며 幸福을 獲得하는 方法은 期待하는 幸福이 아니며 實際로 行動하는 幸福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倦怠니 興奮이니, 絶望, 優柔不斷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精神의 疾患을 警戒하는 方法으로서의 內容을 Propos의 素材로 삼았다.

Alain의 Propos 內容은 위에서 言及한 個人的 認識 判斷과 良心 또는 態度 姿勢의 問題만은 아니다. 權力을 掌握한 사람의 思考方式이며 富를 지닌 사람의 富에 대한 問題, 또는 自由를 누리는 사람, 僱傭關係에 있어서의 主從關係,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戰爭에 관한 問題, 夫婦關係, 正義와 自由에 관한 問題 等, 그와 같은 것에 對해서 생각하는 方法, 判斷하는 方法 등, 結局 이것은 人間精神의 批評을 論한 책이라 하는 편이 보다 妥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Propos에서 試圖된 作品批評의 例

앞에서 Rousseau의 〈에밀〉에 關해서 論한 事項에선 Alain이 人間의 良心에 關하여 言及한 일, 그리고 人間이 自己自身을 支配하는 일에 關해서 論한 事項을 對象으로 Alain의 思想을 分析해 보았다. 그런데 Alain은 언제나 이처럼 어떤 作家의 作品을 作品 자체로서, 그러니까 그 構成問題라든가 또는 時代的인 潮流思潮에 依하여 批判하는 [일보다는 作中の 人物을 가지고 論하는 일이 더 많다. 人物의 性格이라든가 또는 그 性格의 根源이 되는 思考方式을 論하며 그와 같은 作中人物設定의 妥當性 등과 聯關지어서만 作家를 論한 것이 大部分의 경우

같다.

지금은 그런 것 中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Alain 의 글 속에 자주 나오는 人物中의 한 사람으로 「고브세크」<sup>87)</sup>가 있다. 「고브세크」를 두고 Alain 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Le Gobseck de Balzac n'est pas un de ces avares imaginés qui entassent; C'est un homme qui exerce une puissance, et qui fait mouvoir les passions comme sur une scène. On s'étonne de voir qu'un avare ne jouit pas de son argent; C'est que l'argent n'est pas tant un moyen de jouissance qu'un moyen de puissance.<sup>88)</sup>

여기서 Alain 은 「고브세크」가 갖는 기쁨을 힘(金錢)의 蓄積으로써 判斷한다. 사람이 행동에 뛰어 들어, 자기의 힘을 시험할 때, 「隸屬과 無力을 느끼는 것 이외의 고통이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브세크」는 자기의 行動을 지배하는 한도껏, 기쁨을 찾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번엔 「그랑테」 얘기로 옮겨간다. Alain 은 우리가 Balzac 의 소설을 읽을 때 보는 바와 같이, 「발자크」의 소설에 나오는 「그랑테」 영감이 「商談을 할 때면 일부러 말을 더듬는다」<sup>89)</sup>는 것에 關係해서도 批評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속셈은 감추어 두고, 상대방의 속셈만을 실토하게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란 것이다. 「왜냐하면 이 편이 말더듬이의 답답한 말을 견디다 못해, 그것을 걸어치우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기 때문」에 쓰는 술책이란 것이다.

또 Balzac 의 〈Honorine〉 같은 小説의 主人公들에 言及한 대목에선, 夫婦間의 사랑에 있어서 「暴君的인 사랑」과, 「너무나도 자신에게 부주의한 獻身을 다하기 때문에 서서히 殺害되어 가고 있는 한 아내의 모습」을 評하며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이 많은 幸福이란, 기실 끊임 없는 自己否定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고 指摘하고 있다.

La beauté est une énigme si on la prend comme un bien étranger et que l'on voudrait conquérir; et le tourment de la jalousie est sans doute de remarquer qu'on la déforme en la voulant saisir selon soi, non selon elle. Heureux au contraire celui qui la voit fleurir!<sup>90)</sup>

대체로 Balzac 의 人物에서 Alain 은 情念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가 話題로 삼기 좋아하는 類型의 人物들이 批評 對象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또 Stendhal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가령 Stendhal 의 小説〈赤과 黑〉의 主人公 「쉴리앙」의 경우는 그를 「個性이 缺如되어 있

87) Gobseck, Balzac 의 小説人物, 구두쇠, 高利貸金業者

88) Alain, Esquisses de l'homme, p. 200

89) Alain, Sentiments Passions et Signes p. 116

90) Ibid., p. 24



는 때문에」 「하나의 性格, 그 以下일 수 조차 있는」 사람으로 批評하고 있다. 여기서 個性이니 性格이니 하는 것은, Alain 이 氣質・性格・人格・個性이라는 네 개의 項의 系列을 가지고 區分한 것이며 氣質은 生物學的이며, 個性은 社會學的이며, 人格은 道德的이며, 性格이란 思考된 氣質이라 보는 系列的인 區分으로 본 것이다. Alain 은 「켈리앙」을 다음과 같이 評하였다.

un charmant animal, voilà toujours à quoi il retombe.<sup>91)</sup>

Alain 이 特히 Balzac 과 Stendhal 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Balzac 이나 Stendhal 에게서 自身이 特徵지어 標本으로 삼고자 하는 人物을 자주 만나는 때문이다.

C'est pourquoi ceux qui ont vu beaucoup d'hommes en liberté, qui savent retenir justement ce que ces hommes oublient aussitôt, et qui le rapportent fidèlement, sont plus riches d'idées que le philosophe monoloquant. Il y a, je crois plus d'idées réelles dans les Confessions de Rousseau que dans son Emile; et il est rare que l'on lise des Mémoires sans en tirer quelque chose. Si vous me demandiez ce qu'il faut lire pour connaître l'homme, je conseillerais plutôt de lire Balzac ou Stendhal, qui ont recueilli et enchâssé tant de paroles échappées, que La Rochefoucauld lui-même, qui s'étudie à répéter la même chanson.<sup>92)</sup>

結局 Alain 의 意見을 따르자면 Balzac 나 Stendhal 속에는 「人間을 알기 위하여 읽어야 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다. 文學作品이 「眞實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똑같은 노래」와 같은 內容이기 보다는, 어떤 事物을 「그 당장에 퍼덕이는 날개소리와 같은 젊음이며, 다양성이며, 자유를 발견」케 하는 「그것들 자신의 노래」로 된 內容인 편이 더 좋다는 얘기다.

여기서 우리는 Alain 이 哲學과 比較하여 文學을 말한 內容을 살펴보면 그가 判斷 批評한 文學認識을 뒤따라 보기로 하겠다.

Toutefois j'avoue que j'ai plus trouvé encore de notions réelles sur l'homme dans les romanciers et dramaturges, et même dans les poètes. Je citerai Gobseck et le curé Bonnet, dans Balzac; Besoukow et Karénine dans Tolstoï Fabrice et Julien dans Stendhal; Othello, Hamlet et Coriolan de Shakespeare; sans oublier Goethe, sans oublier le Hugo des Misérables, et remontant même jusqu'à Homère, qui nous peint au naturel, et presque physiologiquement, les mouvements d'Achille, d'Ajax, d'Ulysse. Mais, comme c'est par hasard ou surprise que le philosophe nous dit enfin ce qu'il pense, . . . . .<sup>93)</sup>

이것은 人間觀察과 사람을 認識하는 認識의 手段方法을 考究한 思索의 支柱로서의 創作物

91) Alain, *Eléments de philosophie*, p. 208

92) Alain, *Sentiments Passions et Signes*, p. 186

93) Alain, *Eléments de philosophie*, p. 325

에 對한 그의 評言이라고 보아진다. 지금 Alain 의 Propos 의 思想을 모조리 整理하기는 不可能한 일이지만, 그 根元이 倫理的인 道德上의 人性批評과 人間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한 認識의 手段過程들을 描寫한 것임을 確言할 수 있다. 또한 Propos 속에서 例示로 引用한 數千事項의 他 著作家들과 그 著書·作品 또는 古今의 哲學者들의 思想 및 逸話들이 그러하였음을 確言할 수 있다.

#### 4. 百年 後에 남는 文學

Denis Saurat Alain 에 關해서 말하기를 『서로 다른 여러가지 傾向의 사람들도 Alain 을 읽고서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Alain 은 오늘날의 人間의 存在樣相과 思考作用과의 사이의 深奧한 연결관계를 捕捉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때문이다』<sup>94)</sup>라고 하였다.

이렇듯 Alain 文學은 그의 Essai 의인 人性批評 Propos 에서 多角的으로 人間全般에 걸친 要約不可能의 廣範圍한 內容을 對象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그가 文學에서 意識한 哲學 때문이었으며, 이 哲學이야말로 人間의 마음 속에 남는 敎訓이며 詩라 할 수 있다. Alain 의 念願은 모름지기 人間의 實踐의 方面에서 完全한 人物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으리라. 그의 誠實은 人間의 幸福이 自己의 幸福과 他의 幸福의 相互作用에서 더 價値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와같은 思想은 「주어진 기쁨은 소용 없다」고 보았으며 「安樂은 아무것도 解決치 못한다」고 보았다. 아마도 이 思想은 그의 文學觀 내지는 藝術觀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얘기와도 相容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Heureux donc qui voit dans le travail de la veille les marques de sa propre volonté.<sup>95)</sup>

Alain 은 前夜의 作業에서 自身의 意志의 痕跡을 認定하는 기쁨과 幸福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自己自身の 文學理論이자 다른 모든 사람의 藝術作品을 評하는 藝術論의 基本理念이려니 믿는다. 이와같은 그의 思想은 그가 생각하는 「德」 「惡德」 하고도 直接的으로 關聯이 있다.

La vertu semble donc être une santé, une beauté, un bien-être de l'âme, et le vice, une maladie, une laideur et une faiblesse.<sup>96)</sup>

이것은 그가 <Idées> 에서 「Platon 에 關한 11章」中 X章 「Le Sac」의 머리에 引用한 「共和國」의 句節이지만 이것이 Alain 의 人間判斷理論이었다고 생각된다.

「Les idées en résumé ne sont même plus des idées.」 Celles d'Alain surtout qui valent, non

94) N.R.F. nov. 1932, Denis Saurat: Alain

95) Alain, Propos sur le Bonheur, p. 151

96) Alain, Idées, p. 85

par la charpente logique mais par les métaphores et paraboles, par la profonde poésie.<sup>97)</sup>

要約될 수 없는 思想이로되 德의 理念을 바탕에 깔고 隱喩와 比喩로서 人生의 深奧한 詩를 펼치므로 始終한 文學 그것이 Alain 의 Propos 文學이었다.

『人間的이라면 아름다우리라』고 말하는 Alain 이 『그저 아무 곳이고 좋으니까 플라톤의 책을 펼쳐 보라』고 한대로 우리도 Alain 의 책, 아무 곳이고 펼치면 된다. 幸福해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同時에 아름다운 작업이라는 思想을 배우게 될 것이다.

Je dirai qu'autant qu'un philosophe, Alain est un poète.<sup>98)</sup>

Enfin il y avait en Alain un romancier en puissance, . . . . . Et quelquefois le Propos devient un poème en prose.<sup>99)</sup>

André Maurois 는, Alain 의 語錄 속에 粗描된 人物 속에서 小說의 人物을 感知하고, 그 文章에서 文體를 發見하며 그 속에 內包된 寓話를 본다고 하였다. Denis Saurat 는 또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앞으로 百年 후에 理解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當然히 「알랭」의 著書로 向해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百年 동안 사람들은, 그의 수 많은 著作의 寶庫를, 실컷 이용할 것이다』<sup>100)</sup>라고 하였다. 「今世紀의 作家 中에서 누가 後世에 남을 것인가?」를 말할 때, 「Alain 만은 確實하다」고 말하며 Maurois 는 「만약에 讀者들이 이 바꾸기에 따뎀아진 것들을 지닌 풍요한 果樹園엘 가보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Montaigne 가 자기 時代에서 지니던 자리를 現代文學史上에서 차지하게 될 大文學, 내가 그에게 말한 바 百年이 가기 전에 차지하게 될 大文學을, 讀者 스스로 研究하고자 한다면」<sup>101)</sup> Alain 을 말하는 수고는 다 達成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Maurois 의 말처럼 Alain 의 文學은 우리에게 「百年의 熟考 거리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97) André Maurois, Alain, p. 21

98) Ibid., p. 137

99) Ibid., p. 139

100) Denis Saurat, Alain. (N. R. F. nov. 1932)

101) André Maurois, Alain, p. 22

## 參 考 文 獻

## I. Alain 의 作品

- |  |                 |
|--|-----------------|
| (1) Propos   |                 |
| 1. <i>Les cent un propos d'Alain</i> 1928.           | M. Lasage       |
| 2. <i>Les Propos d'Alain</i> 1920 2 vol              | Gallimard       |
| 3. <i>Propos d'un Normand</i> 1906-1914. 5 vol       | Gallimard       |
| 4. <i>Mars ou la Guerre jugée</i> 1921, 1936,        | Gallimard       |
| 5. <i>Propos sur l'Esthétique</i> 1923.              | Librairie Stock |
| 6. <i>Propos sur le Christianisme</i> 1924.          | P. U. F.        |
| 7. <i>Propos sur le Bonheur</i> 1925.                | Gallimard       |
| 8. <i>Jeanne d'Arc, sept propos</i> 1925.            | Nimes J. Fabre  |
| 9. <i>Sentiments, Passions et Signes</i> 1926, 1935. | Gallimard       |
| 10. <i>Esquisses de l'Homme</i> 1927.                | Gallimard       |
| 11. <i>Les Dieux</i> 1934.                           | Gallimard       |
| 12. <i>Propos de Politique</i> 1934.                 | P. U. F.        |
| 13. <i>Propos d'Economique</i> 1935.                 | Gallimard       |
| 14. <i>Les Saisons de l'Espit</i> 1937.              | Gallimard       |
| 15. <i>Propos sur la Religion</i> 1938.              | P. U. F.        |
| 16. <i>Minerve ou de la Sagesse</i> 1939.            | P. Hartmann     |
| 17. <i>Suite à Mars</i> 1939 2 vol                   | Gallimard       |
| 18. <i>Préliminaires à l'Esthétique</i> 1939.        | Gallimard       |
| 19. <i>Vigiles de l'Esprit</i> 1942.                 | Gallimard       |
| 20. <i>Préliminaires à la Mythologie</i> 1943.       | P. Hartmann     |
| 21. <i>Humanités</i> 1946.                           | P. U. F.        |
| 22. <i>Politique</i> 1952.                           | P. U. F.        |

- |                                       |                                     |
|---------------------------------------|-------------------------------------|
| 23. <i>Propos sur des philosophes</i> | P. U. F.                            |
| 24. <i>Propos de littérature</i>      | P. Hartmann                         |
| 25. <i>Propos I</i>                   | La Pléiade                          |
| 26. <i>Propos II</i>                  | "                                   |
| 27. <i>Les Passions et la sagesse</i> | "                                   |
| 28. <i>Les Arts et les Dieux</i>      | "                                   |
| 29. <i>Propos sur l'éducation</i>     | Presses Universitaires<br>de France |
| 30. <i>Les Idées et les Ages</i>      | Gallimard                           |

## (2) 研究書

- |  |                                     |
|--|-------------------------------------|
| 31. <i>La Théorie de la connaissance des Stoïciens</i>         | Presses Universitaires<br>de France |
| 32. <i>Esquisses d'Alain I Pédagogie Enfantine</i>             | P. U. F.                            |
| 33. <i>Esquisses d'Alain II La conscience morale</i>           | P. U. F.                            |
| 34. <i>Esquisses d'Alain III La recherche du bonheur</i>       | P. U. F.                            |
| 35. <i>Esquisses d'Alain IV Dialectique des sentiments</i>     | P. U. F.                            |
| 36. <i>Charmes de Paul Valéry, commentée par Alain</i>         | Gallimard                           |
| 37. <i>La Jeune Parque de Paul Valéry, commentée par Alain</i> | Gallimard                           |
| 38. <i>Souvenirs concernant Jules Lagneau 1925.</i>            | Gallimard                           |

## (3) 哲學書

- |   |                                    |
|---|------------------------------------|
| 39. <i>Eléments d'une Doctrine radicale 1925.</i> | Gallimard                          |
| 40. <i>Eléments de Philosophie 1941.</i>          | Gallimard                          |
| 41. <i>Lettres sur la Philosophie première</i>    | P. U. F.                           |
| 42. <i>Philosophie (textes choisis), 2 vol</i>    | Presses Universitaire<br>de France |
| 43. <i>Idées</i>                                  | Gallimard                          |

## (4) 傳記

- |   |           |
|---|-----------|
| 44. <i>Histoires de Mes Pensées 1936.</i> | Gallimard |
|---|-----------|

## (5) 其 他

|  |             |
|--|-------------|
| 45. <i>Système des Beaux-Arts</i> 1920, 1926.                                      | Gallimard   |
| 46. <i>Lettres au Docteur Henri Mondor sur le Sujet du coeur et l'esprit</i> 1924. | Gallimard   |
| 47. <i>Le citoyen Contre les pouvoirs</i> 1925.                                    | S.          |
| 48. <i>Stendhal</i> 1935.  | P. U. F.    |
| 49. <i>Avec Balzac</i> 1936 《En lisant Balzac 改題再刊》                                | Gallimard   |
| 50. <i>Souvenirs de Guerre</i> 1937.   | P. Hartmann |
| 51. <i>Entretiens chez le Sculpteur</i> 1937.                                      | P. Hartmann |
| 52. <i>Les Aventures du Coeur</i> 1945.  | Gallimard   |
| 53. <i>En lisant Dickens</i> 1945.   | Gallimard   |
| 54. <i>Entretiens au bord de la mer</i>  | Gallimard   |
| 55. <i>Echec de la force</i>   | Gallimard   |
| 56. <i>Vingt Leçons sur les beaux-arts</i>   | Gallimard   |
| 57. <i>Convulsions de la force</i>   | Gallimard   |
| 58. <i>Le roi Pot, chronique de l'autre règne</i>                                  | Gallimard   |
| 59. <i>La Viste au musicien</i>  | Gallimard   |
| 60. <i>Morceaux choisis</i>  | Gallimard   |

## II. Alain 研究書

|                |                          |                 |
|----------------|--------------------------|-----------------|
| X. X.          | <i>Alain, Professeur</i> | Paul Hartmanne  |
| André Maurois  | <i>Alain</i>             | Gallimard       |
| André Maurois  | <i>De proust à Camus</i> | Académie Perrin |
| Georges Pascal | <i>La pensée d'Alain</i> | Bordas          |
| H. Mondor      | <i>Alain</i> 1953.       | Gallimard       |
| N. R. F.       | nov. 1932.               |                 |
| 白井成雄           | ラニヨーとアラン〈付書簡〉            | 筑摩書房            |